



# 광역일보

대구 경북

www.dgy.co.kr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3136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오늘의 날씨 대구 3~10℃ 경북 3~10℃ 단기 4348년(음력 11월 14일)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KB 국민은행**  
**대구국가산업단지지점 개점**  
 달성2차산업단지 입구 웰빙온천 1층  
 상담전화 : ☎ 053-617-3371

## 테러범 정조준

대테러 발생 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이 실시된 23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민회관에서 제50보병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 저격조가 적을 겨냥하고 있다.



## 권영세 안동시장 정치생명 최대 위기

우리복지시민연합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안동시장 불법선거자금의혹 밝혀 일벌백계하라

검찰이 지난 22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A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안동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안동지역 A복지재단 이사장을 횡령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10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이 권 시장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를 확인하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는 복지재단과 지도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와의 유착이 불법 선거자금으로까지 확대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의혹을 한 줌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복지재단이 비자금용을 조성하고 비자금 중 일부가 불법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다"며 "권력과의 유착으로 비리를 일삼아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과 관련된 A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억원의 횡령한 혐의로 재단이사장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구 기자

## 울릉 일주도로2구간 드디어 착공... 5년뒤 완전 개통

2020년 완공계획 1552억원 투입 안전한 일주도로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서 해방



울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릉일주도로2구간 사업이 착공됐다.

울릉일주도로2구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90호선의 울릉읍 저동리에서 천북리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 추진중인 울릉일주도

로 터널공사와 연결된다. 공사는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1552억원을 투입하며 21.1km의 일주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사업비 34억6000만원을 확보, 착공하게 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된다.

울릉 일주도로 구간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낙석, 산사태, 너울성파도, 겨울철 상습결빙 등)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겨울철 너울성 파도로 인한 교통두절로 통행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조기착공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덜기위해 경북도는 △울릉일주도로 개량구간 21.1km(교량5곳, 터널5곳, 피암터널4곳, 재포장5.9km, 확포장6.0km, 성능개선7.1km)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로 바꾸기 위해 기본설계 심의 및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거쳐 지적사항을 꾸준히 보완해 왔다.

도는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 도로로 건설한다.

사업은 애초 2019년 이후 착공예정 이었으나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울릉군 관계자들과 함께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예정보다 4년 이상 앞당겨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도로가 안전한 일주도로로 바뀌면 낙석, 산사태, 너울성파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내수전-섬곡간 일주도로 건설공사와 함께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두절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울릉도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양정배 도 도로철도공항공정장은 "이번에 착공하는 울릉일주도로2구간 건설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울릉공항과 함께 완공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1일 생활권 내의 관광지가 돼 울릉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환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 “보육대란 현실로”...

대통령 면담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와 대화하고 국회를 설득하며 호소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할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요청했다”며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토막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는 것 처럼 보인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조치를 취



지난 18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보육대란-유초중고 교육재정 파탄 책임 박근혜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적 협동기구 구성과 1-2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 태도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 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 해를 버텼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뉴스시스

##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은

2016학년도 정시모집 공통원서접수 오늘부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016학년도 정시모집' 공통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4년제 대학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24~30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되며, 전문대학은 1차(24~내년 1월5일)와 2차(내년 2월 11~15일)로 나뉘 실시된다.

이번 정시모집부터 도입되는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수험생이 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대학별로 원서를 반복해 작성해야 했다.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등 원서접수 대행사 한 곳을 통해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학 137개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수원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한국방송대 등 대학 자체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일부 대학은 제외된다.

공통원서 항목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번호, 출신학교 정보 등이 있으며 공통자기소개서는 지원할 대학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한편 작성한 공통원서 및 공통자기소개서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재출용되며, 필요하면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컴퓨터에서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험생들은 27일까지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완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2016 사원모집**  
**대구광역일보 공채속보**  
 2016년 경북지역 취재기자 공개채용  
 우편접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경영관리국 (053) 253-0000, 257-0000



광역일보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2



## 오세훈, '金대표 요청불구' 종로 출마 강행하나

김무성의 두차례 설득에도  
“종로는 협지” 기존 입장 유지  
3선지낸 박진 전 의원과  
‘교통정’ 불구 ‘효과’ 미지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협지 출마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종로가 협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오 전 시장이 종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당의 협지출마 권유가 공식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지난 11월 초에도 오 전 시장을 만나 협지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오세훈 “거물 정세균 버티는 종로는 협지”  
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전 시장과 만나 협지 출마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에게 이번 총선에 당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협지 출마 요구 사실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면서도 “그러나 정세균이라는 거물이 버티는 종로 지역을 포함해서 계속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뉴스

# “노동개혁 좌초시 역사가 심판”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 주제  
수술 미흡수록 치료 불가능해져  
경제·민생 입법 국회권리가 아닌 의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인 데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화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난 12월 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냐”면서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하는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이와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신이 번쩍 들 것인데 정말 모두가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노동개혁 등의 과제들을 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내년도에 4대 부문 등의 개혁 강도높게 진행할 것 주문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중점 개혁과제의 지난 성과들을 되짚으면서 정부가 내년도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공공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 사업 통합,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언급한 뒤 “예산 낭비나 비효율의 관행은 오랫동안 쌓여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개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확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성과로 언급하면서도 “지난 9월 120여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17년 만에 노사정 대화협을 이뤄냈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SC) 도입 등

으로 교육과 취업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제 이런 희망의 싹을 구체적 결실로 키워서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교육개혁 과제들의 성과는 결국 현장에 달려 있는데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융개혁은 “초기에는 잘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과물들이 하나 둘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실명확인, 기술금융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금융산업에 보다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새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과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이제 투자로 확대하는 혁신과제들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17개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 문화창조융합센터 출범, 에너지산업 육성, 한·중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등을 올해 핵심개혁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로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4대 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왔던 것들”이라며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사회의 전반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다”며 “여러분께서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새해에도 4대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

## “물이 썩어 고여 있는 경산의 정치 바껴야”

새누리당 안병용 예비후보,  
총선 출마 기자회견 가져



부한 중앙정치 경험과 인맥을 꼽았다.  
안 예비후보는 “31년간 중앙정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7대째 살고 있는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7)이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산시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3일 출사표를 던졌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오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이날 오후 2시, 경산공설시장에서 공식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학창시절부터 34세의 나이로 중앙당 실무국장을 역임하며 시작했던 자신의 정치역정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2012년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으로 구속됐다 무죄확정을 받았던 과거를 밝히며 “정치 탄압 속에서도 새누리당 조직을 보호해 박근혜 정부 탄생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현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 예비후보는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책 배려와 관심은 커녕,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공짜복지논리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경환 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제전문가로 경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남겼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또 자신의 장점으로는 풍

고향 경산을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지난 여름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지역의 관련단체 행사마다 기웃거리기도 하는 하루 10시간 이상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환을 나누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또 “경산을 전국적인 친환경도시,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해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안전하게 미래를 꿈꾸며 자라고 젊은이들은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성남초·자인중·청구고·건국대·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나라당 부대변인, 17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새누리당 서울시장 윤리위원장,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후보 조직특보 등을 역임했다.

신영운 기자

## “명품 달서구를 만들겠다”

도영환 전 달서구의회 의장  
23일 달서구청장에 출사표 던져



하고 이를 통한 본인의 이상적인 지방행정 정치철학을 펼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전임 구청장의 중요 공약사업이었던 5개 분

도영환 전 달서구의회 의장이 ‘명품 달서’를 만들기 위해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도 전 의장은 23일 달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도 전의장은 출마선언문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울퉁한 정신과 소신으로 바른길을 가겠다는 원칙하로 지방의회에 진출, 달서구의회 3선의원으로 재임했다”며 “무엇보다 달서구정에 이상적인 시각으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과 조화로써 달서시정과 달서구정을 통합하고 견제함으로써 달서구 의장으로서 지도자적 리더십을 61만 달서구민들의 가슴속에 강력하게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밀착된 활동과 실천으로 그 누구보다도 달서구청장으로서 책임자라고 확신

야 41사업으로 2016년도 구청장 공약사업의 절반을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지역경제와 민생,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시급한 공약사업들을 한 점 차질 없이 완벽하게 재추진해 달서구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도 전 의원은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서 태어나 대구 한국통신고등학교, 대구 계명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달서구의회 3선의원, 제3대 달서구의회 후반기 내무위원장, 제4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6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등을 지냈다.

자유현 기자

## “달서구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

김원구 대구시의원,  
달서구청장 보선 출사표



분의 그동안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거공약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국선실 △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56)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달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최초 전문직 출신 시의원이자 30년 경력의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구시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수립해 왔고 달서구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뒷받침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달서구가 1988년 출범 후 27년만에 대구 산업생산의 중심 역할을 하며 인구 61만명의 도시로 성장 해왔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은 양적 성장에 치우쳐 왔다”며 “이제는 구정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달서구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구청장 선거출마를 하고자한다”며 “더 멋진 달서구를 만드는 것으로 주민여러

육하기 좋은 도시 △1등 교육도시 조성 △격조 높은 문화도시 조성 △심각한 도로교통상황 해소 △소주민복지 강화, 고품격 시대 준비 등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경북대 사범대 부속초등학교와 대구 중앙중학교·대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으며 마이트로 네트워크 대표, 계명문화대 겸임교수, 경운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자유현 기자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각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합헌’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각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합헌’  
미수금 당시 일본 통화  
1엔당 한화 2000원 환산 정당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미수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한 한일청구권협정 사건은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접수된 지 6년 1개월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윤재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2009년 이씨가 “부친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 가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제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수금 지원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입법 재량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환산법은 1975년을 기준으로 해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원(약2000원)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소장인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 재판관 등은 “미수금 지원금이 시혜적인 성격만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945년 당시 일본 돈 1엔과 한국 돈 1원은 1:1 비율로 교환됐다”면서 “1953년 대비 2007년의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은 약 1만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엔당 2000원이라는 기준은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씨는 2009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뉴스

경북도  
로봇산업  
10대 일감

광역일보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3

수중건설로봇(장비) 3종 로봇



16일 오전 서울 장충동 타자마당에서 열린 '로봇 파티'에서 관계자들이 술진구 로봇 '드링키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대한민국 로봇산업 선구자 경북도 지역별로 특화해 집중 육성

도, 로봇산업발전 10대 '일감' 추진  
로봇산업 10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가전문연구원으로 전격 승격  
우수기업 로봇산업 진출  
유망기업 유치, 청년창업 유도 올인

경북도가 로봇산업발전 10대 '일감'을 전격 추진한다. 도는 23일 경산 인터볼고CC 대연회장에서 로봇관련 산학연 20여개 기관과 기업이 참석, 그동안의 로봇산업 성과를 점검했다. 또 '2022년 10대 로봇 일감' 추진에 따른 '경북 로봇산업 비즈니스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2005년 설립한 포항지능로봇연구소를 2012년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과 함께 국가전문생산연구원으로 승격시켰다. 현재 연구인력 64명 규모로 2개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봇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2012년 예타를 통과해 2013년부터 7년간에 걸쳐 8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미래해양기술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6개 기관·기업이 R&D에 참여, 70%의 R&D진행을 보이며 2015년 8월 연면적 4399㎡ 규모의 연구시설 및 복합실증센터를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착공, 2016년 말 완공한다. 올 8월 예타를 통과해 2016년부터 6년간에 걸쳐 71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민안전로봇 일감 사업을 유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재난현장 정찰로봇과 유인인 방재작업 로봇, 통합관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수중자율유영 로봇개발 82억 △재난재해 대응 특수목적기계 271억 △영주 장수일반산업단지에 High-Tech베어링 산업기반 구축 275억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구축 327억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수중글라이더 운용시스템 개발사업(36억)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지원 사업으로 △㈜오토의 산업용 로봇 △㈜EHA의 공장조정용 전기유압 제어시스템 △태림메디텍㈜의 임플란트용 개인 맞춤형 멀티기공기와 △㈜토탈솔루션의 로봇기술 기반의 지지형 기립보조 장치 △㈜폴리시스 세계 최초로 무인자동 콘크리트 폴리싱 로봇 △하나메카텍㈜의 돈사관리로봇 △㈜아진산업의 승마로봇 △㈜지엠텍의 수중청소로봇 개발을 지원, 국제로봇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 중에 있다.

■ 경북도 로봇산업발전 10대 일감 추진  
2012년 수립한 경북 로봇산업 육성 계획을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을 고려, 신 로봇산업 육성 전략인 '경북도 로봇산업 발전 10대 일감'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행을 위해 지역별, 기관별 T/F팀(테스크포스)을 구성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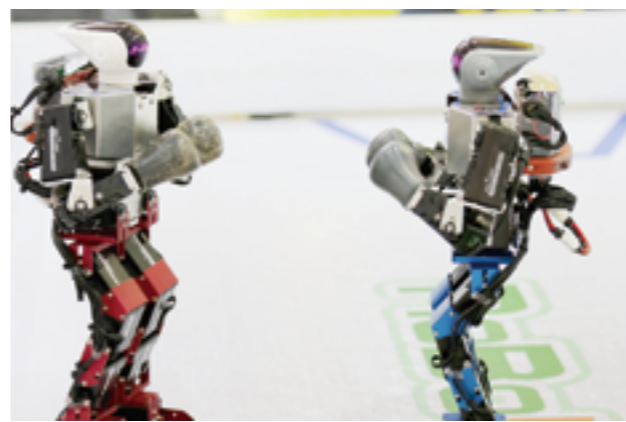
10대 일감은 △해양로봇 △항만 물류 무인이동체 △철강 자동화 △안전&산업 △국방&소방 △스마트센서 △가전로봇 △의료로봇 △기계&베어링 △문화로봇 등이다.  
◇동부권  
해양+무인이동체+철강자동화+안전&산업로봇 산업을 연계해 포항 영일만3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양·안전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진행중인 수중건설로봇, 수중자율유영, 수중글라이더 운용시스템, 국민안전로봇과 기획중인 극한엔지니어링, 무인이동체 기반물류 자동화, 철강 생산시스템 로봇화 일감을 추진한다.  
◇남부권  
국방+소방&산업+센서+가전 산업을 연계한 로봇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영진에는 국방로봇연구소 유치, 사회안전용 웨어러블 슈트사업을 경산에는 재난재해 대응 특수목적건설기계 프로젝트와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 기업중심의 가전로봇을 특화한다.  
◇중부권  
구미를 중심으로 센서+가전+의료 로봇 일감을 추진한다. 의료로봇산업 연구기반 구축사업, 스마트 센서 거점 육성, 삼성, LG 등 지역 전자업체들과 가전지능로봇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북부권  
영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기계&베어링+문화로봇 일감을 추진한다. 안동에는 역사문화와 연계한 복합 체험형 문화콘텐츠 로봇개발사업, 발농사와 접목한 발작물 로봇을 개발한다. 영주에는 의료로봇 등 다관절 로봇의 핵심기술인 베어링 성능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

■ 로봇기업 투자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로봇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수의 계약으로 우선 분양한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줄 뿐 아니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기업관련 자금을 최우선 지원한다. 매년 20팀, 총 100여명 안팎의 임상자를 배출하는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임상자가 청년창업을 할 경우 사무실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책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의 조성책을 제공한다. 매년 5개 과제를 선정해오던 특화로봇 개발 사업을 10개까지 확대하고 가전로봇은 계획을 초과하더라도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정병윤 경제부지사는 "수중건설, 국민안전, 특수목적 건설기계 등 건설·안전로봇 분야 R&D는 경북도가 특화시켜 가고 있지만 사업화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므로 지역 기업들과 함께 건설·안전 로봇과 기술의 연계성이 높고 사업화기간이 비교적 짧은 가전로봇과 산업로봇을 중심으로 10대 일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발농사 로봇, 의료로봇 등 로봇사업을 다변화시켜 가간다면 소재, 기계, 센서 등 각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성장한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김성용 기자



사진은 승마로봇 탑승자가 가상환경 스크린을 통해 실제 승마와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같이의 가치 NH 농업

##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농협지역본부 | 동대구농협 | 서대구농협 | 북대구농협 | 동촌농협 | 반야월농협 | 고산농협 | 성서농협 | 월배농협 | 공산농협 | 칠곡농협 | 대구경북원예농협

# 사회

광역시도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4

## 경부고속도로 경주휴게소 인근에서 7중 추돌... 1명 중상

경부고속도로 경주휴게소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경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경주휴게소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1톤 포터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버스를 비롯해 승용차, 25톤 화물차, 4.5톤 화물차 등 5대의 차

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 트럭 운전자 강모(57)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사고로 인해 10km에 걸쳐 차량 지·정체가 발생했으나 이날 오후 3시30분경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윤용찬 기자



#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잔잔한 감동 주다

## 제로캠프 프로그램 일환 창작 뮤지컬 '날개' 공연

소년 수형자들의 뮤지컬 공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소장 홍성천)는 22일 대강당에서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한 '제로캠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형자 창작 뮤지컬 '날개'를 공연했다.

이날 공연에는 유승만 대구지방교정청장, 최불암(배우) 제로캠프 위원장, 박보생 김천시장, 교정위원, 수형자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뮤지컬 '날개'는 소년수형자들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직접 적은 수기를 바탕으로 이양구 작가가 대본을 다듬었다.

소년수형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



다. 2013년 첫 공연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과거에 수감경험이 있는 독지가가 퇴직금 30억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2월부터 소년수형자들에게 문화·예술·체육 교육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연참가자 20여 명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대본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노래와 춤을 연습했다. 자신들이 막연하게 꿈꿔 왔던 미래가 무대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도 체험했다.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공연에 참여한 수형자 김모(19)군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노래와 춤, 연기 하나 하나가 모여 하나의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밝고 희망적으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에 난 생애를 뿌듯함을 느꼈다"며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불암 제로캠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은 인간 내면의 심성순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며 "소년수형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나눔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천 소장은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간절한 희망의 꿈을 그림줄 아는 주인공 경호의 모습처럼 수형자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내면의 인성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규목 기자



##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경본부, 의무경찰 의료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손승국)는 22일 성서경찰서를 방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무경찰을 격려하고 라면 76박스를 전달했다.

손승국 본부장은 치안유지에 힘쓰고 있는 의경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추운 겨울을 활기차게 보내는데 위문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 북구청-북구공무원노동조합, 손잡다

## '2015 노사 단체협약' 체결

대구 북구청과 북구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5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배광식 북구청장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석현정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9백여 조합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합활동, 근무조건, 조직문화 개선,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제도개선, 후생복지 등 총 9장 115개 조항의 교섭안이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이날 체결식에서 배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 그동안 각종 구정현안에 대해 동행해 함께



상생의 자세로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조에 감사하다"며 "협약된 내용이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가 체결한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숙직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7일 이내 대체 휴무 실시 △동정사 청소인력 또는 예산

지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20년이상 장기재직자 여행상품권 등 지급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시찰 실시 등으로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후생을 이끌어 냈다.

석현정 노조위원장은 "220여 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하는 5번째 단체협약을 하게 됨을 조합원을 대표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도 서로 배려해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북구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북구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합법노조로서 유일하게 2006년부터 5번의 단체교섭을 통해 북구청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복리향상에 큰 성과를 일궈냈다. 지우현 기자

# 현재 "주민번호변경 근거 마련하라"

##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현행 주민등록번호법은 변경 규정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법적으로 개선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다만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순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현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변경에 대해



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앞서 청구인 강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다"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상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후 강씨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이들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 동천지구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 이상식 경찰청장 격려 메시지 전달

대구 경북경찰서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중국인을 검거한 동천지구대에 이상식 대구경찰청장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천지구대는 지난 21일 오후 2시15분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해 김모(80)씨에게서 현금 90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중국인 A(35)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9천만원을 인출·보관했지만 직접 경찰이 온다는 말이 수상해 동천지구대를 방문,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 인근에 숨어있던 골목에서 서성이는 A씨를 발견, 150여미터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이상식 청장은 주재 일일회의에서 동천지구대의 활약을 격려하며, 20여만원 상당의 야식쿠폰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우현 기자



# 무태파출소, 이웃사랑에 앞장서다

## 사랑의 동지 팔죽 나누기 행사 개최

대구 경북경찰서는 22일 무태파출소에서

'사랑의 동지 팔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인정사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무태파출소와 무태생활안전협의회가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팔죽과 팔떡을 나눠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팔죽과 팔떡, 과일 등을 함께 나눠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경찰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 총선에 의한 땀질 선거, 지역민을 배신하는 행위

## 정의당, 개선 시급하다 밝혀

정의당 대구시당은 23일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총선을 위한 사퇴 여부와 관련, 구민 등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논평을 통해 맹비난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총선에 의한, '총선을 위한' 땀질인사란 비난이 최근 언론 등을 통

해 빔받치고 있다"며 "마음이 풍발에 가있던 장·차관들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왔을지는 불 보듯 뻔할 일이다"고 비난했다.

또 "이 와중에 대구에선 광대한 달서구청장의 총선 출마에 따른 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져올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며 "윗 자리를 노리는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의 줄줄이 사퇴로 연쇄적 보궐선거가 치뤄질 모양새다. 한마디로 '총선에 의한, '총선을 위한, '땀질선거'이

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전 주민들의 총지한 공복(公僕)이 되겠다던 약속은 헌신짝 차버리듯 버려졌다"며 "이런 이들이 그간 맡은바 자리에서 지역의 행정과 발전을 위해 일이나 제대로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 버려진 자리를 땀질해 쓰는 비용 또한 큰 문제다. 달서구청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보궐선거에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이다"며 "선거 발생의 원인 제공자 및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 그 비용을 물려서라도 공당(公黨)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우현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 지원금 전달

대구 경북경찰서가 관내 청소년들 중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강북쪽은 지난 4월 한국BBS대구연맹 강북지회가 발족됨에 따라 지회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특별 이벤트로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산타복장을 하고 학생들의 자택을 방문, 지원활동을 펼치는 '산타원정대'가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강북서는 현재까지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지우현 기자



#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힘을

이들 학생들은 중·고교의 추천을 받아 경북경찰서와 한국BBS대구연맹 강북지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우현 기자

# 대구

광역시보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강대식 동구청장은 24일 동구의회 분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57회 동구의회 제2차 분회의'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4일 서구의회 분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8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참석한다.



임병현 남구청장은 24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햇빛평생대학 종강식'에 참석한다.



백광식 북구청장은 24일 북구의회에서 개최되는 '제21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분회의'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달성장학재단 이사회'에 참석한다.

## 달성군건가·다가통합센터 2015년 공동육아나눔터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달성군 건가·다가통합센터(달성군 공동육아나눔터)가 지난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한 '201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70여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참여했으며, 달성군에서는 '다섯살 하이파이브의 우정이야기'라는 주제로 모두가족품앗이 그룹이 육아나눔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엄마와 자녀들의 행복한 교감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더욱 활성화해 지역사회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육아를 하고 있는 맞벌이, 다문화가족 등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육아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동구사랑나눔 행사 "이웃사랑 달구다"

동구청은 23일 민간사회안전망 대구동구협의회가 आय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2015년 동구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각급단체,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 후원자 등 400여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쌀 1100포, 연탄 3000장, 생필품, 성금 등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동구 관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 1000여 세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접수된 성금은 민간사회안전망 기금으로 조성해 2016년도 연중 동구 관내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의 갑작스런 화재, 질병 등 생활안전사고에 1차적인 긴급구호에 사용된다. 또 공공복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의 복지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쓰여진다.

지우현 기자

## 중구 공무원자원봉사단, 2년 연속 '최우수 봉사단체'

중구 공무원자원봉사단이 대구시가 주관한 '2015년 우수공무원 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왕 선발'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앞서 대구시는 공직사회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공무원봉사단을 선정하고 있다.

중구 공무원자원봉사단은 2003년 2월 중구 공무원과 가족이 모여 결성돼 △매월 1회 달성공원 무료급식 봉사활동 △매년 추석·설맞이 저소득 취약계층 위문 봉사활동 △아름다운 가계와 함께 '나눔 보따리 배달전서' △농촌 봉사활동 △김장담그기 봉사 등 왕성한 활동하고 있다.

지우현 기자



# 대구시·공공기관, 힘모아 따뜻함 나눠

대구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저소득가구 700세대 겨울용품 전달



대구시와 혁신도시로 이전한 8개 공공기관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고 있다. 8개 공공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다.

이들은 22일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행사'를 한국감정원에서 갖고 이어 겨울용품 선물세트 700개를 만들어 동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체결한 '공동 사회공헌 협약'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이뤄진 행사다.

대구시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앞으로 참여 기관과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사회공헌 행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나눔을 통해 대구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 대구시와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야에서 협업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 달성군, 복지분야 정부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영예'



달성군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표창장과 포상금 800만원을 받게 됐다.

올해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합동평가 내용은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발굴실적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율 등 3개 분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우수지자체(13개)로 선정돼 정부 포상을 받게 됐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2년 연속 복지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자체 복지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20만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행복 1등 도시 달성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해에도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 대구 10味 "전국에 알린다"

대구시, '대구식객단' 모집

대구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구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맛집 발굴,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친절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제7기 '대구식객단'을 모집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대구식객단 활동에 참여할 단원 25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대구시민 중 음식 관련 개인블로그 운영자만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음식누리집 대구푸드(www.daegufood.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7기 대구식객단은 올해와 같이 70명을 위촉해 운영되며, 제6기 식객단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45명을 우선선발 후 25명을 신규로 선발한다.

시는 대구식객단원의 활동을 분석·평가해 우수한 활동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식객단 초청행사에 참여기회를 제공하

며,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대구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대구식객단 선발결과는 내년 1월 13일 대구음식누리집 대구푸드(www.daegufood.go.kr)에 공지된다.

그간 제6기까지 대구식객단이 추천한 맛집 9050개가 대구음식누리집 대구푸드에 등재돼 홍보되고 있으며, 매년 식객단 수준이 향상되고 활동실적 또한 활발해 맛집 방문 후기 등 록이 작년 1922건에 비해 올해는 22일 기준 2329건으로 증가했다.

대구시는 대구식객단과 음식누리집 대구푸드를 활용해 대구음식을 국내·외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지우현 기자



## 생생한 진로체험, 이제 앞산커뮤니티센터에서

대명중학교 학생 음식체험

지난 4월부터 운영이 시작된 '앞산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남구청에 따르면 현재 앞산커뮤니티센터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

로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명중학교 학생 26명이 음식체험장에서 셰프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로 부터 이태리 음식에 관한 강의를 듣고 파스타 조리 실습과 시식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장래의 꿈을 위해 야채 다듬기와 면 삶기는 물론 파스타 조리법 등 레시피를 꼼꼼

히 기록하는 등 음식체험에 임하고 있다.

류준영(14·대명중2)군은 "평소 요리 만들기를 좋아해 조리사 자격증과 셰프 쪽에 관심이 많았다"며 "전문가로부터 배워보니 집에서 할 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남구청 도시재생총괄과장은 "앞산커뮤니티센터 개관으로 앞산 맛들레길과 카페거리가 더욱 활력을 띠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산커뮤니티센터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취업 및 창업 바리스타 교육 등도 실시했다.

지우현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 성장 준비한 한 해였다"

"내년 한 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시청 출입기자단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신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뛰여 '시민행복, 창조대구'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 제7차 세계물포럼과 제2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고 물·의료·에너지 등 새로운 미래산업 성장의 기반구축이 가시화됐다고 내세웠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한편 안심료단지 개발계획 완료와 K-2공군기지 이전협의를 완료해 도시성장의 걸림돌을 발전적 공간으로 전환하고 소통을 통한 시민참여정책의 전면 혁신도 성과로 평가했다.

권 시장은 특히 올 한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재난 상황을 시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시민정신을 발휘한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권 시장은 이외에도 도시철도3호선(하늘열차)이 안전하게 개통돼 랜드마크 자리잡아 시민 자긍심 제고는 물론 관광활성화에 기여했고, 올해 이용승객 204만명, 내년에 25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대구공항의 활성화도 자랑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교착상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과 기초수급자의 고독사가 두 차례 발생해 사회복지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권시장은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여 '시민행복, 창조대구'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며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참여와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시가 지난달 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5년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이행실적 4개 분야인 이행기준과 이행실천, 교육, 시민만족도 조사 평가에서 끝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설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무료 누수탐사, 옥상물탱크 무상 철거, 병입수돗물 공급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달구벌 물사랑' 학습동아리를 구성해 수돗물 민원해결 과정을 통한 음용물 향상 프로젝트 연구 활동 등 행정조직의 내부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타 기관의 모범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문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그동안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2015년 동구 규제개혁 우수사례 베스트3 선정

동구청이 올 한해 추진한 규제개혁 주역 사례 10건 중 내·외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사례 베스트 3을 선정했다.

23일 동구청은 우수사례 베스트 1위는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85.2%)', 2위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79건)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신속정비(33.5%)', 3위는 '대형화물차 통행개선으로 자재운반비 등 연간 2940만원의 비용 절감(31.9%)'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은 내·외부 모두에서 1위로 조사됐으나, 내부(외부)에서 상위를 차지한 사례가 외부(내부)에서는 하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주민 등이 보기에는 필요성,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구 누리집 및 내부행정망을 통해 총257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노력도, 창의성 등을 고려해 상위3개 사례를 선택하고, 다득점 순으로 베스트3를 선정했다.

지우현 기자

#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6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24일 문화동 대접실에서 열리는 '포항시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4일 오후 대외협력실에서 열리는 '경주시 체육단체 통합추진위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4일 오후 군청에서 열리는 영덕군 이미지통합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울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교육·전시·체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21세기 해양과학교육의 거점 울진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울진군 죽변면 후정해수욕장 인근에 10만5369㎡, 건축면적 1만2260㎡ 규모로 과학관 및 교육시설, 숙박시설을 갖추게 되며, 수심 6m 깊이에서 바다 속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중 전망대로 함께 세워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역동적인 파도와 바다에 투영된 섬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과학관을 디자인하고, 어디서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총사업비는 1166억원으로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를 거쳐 2020년 6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형삼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 울진군, 첨단 다목적 어업지도선 취항

울진군은 23일 매화면 오산항에서 임광원 울진군수, 임형욱 군의회의장, 황이주, 장용훈 도의회의원, 경북도 동해안 발전본부장, 수산 관련단체장, 어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개최했다.

울진군 연근해에서 어업지도와 구난활동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해 도비 5억원, 군비 25억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어

업지도선을 건조했다.

이번에 건조한 어업지도선은 44톤으로 선체는 강선, 선실은 알루미늄이며, 1319마력 기관 2기를 장착, 항해속도 최대 18노트 이상 낼 수 있고 첨단 전자장비가 장착돼 동해 먼 바다까지 원활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전진 후 다목적 어업지도선이다. 김형삼 기자



# 포항시, 투자협약기업 CEO 초청 간담회 가져

## 투자협약기업 25개사 CEO 초청 (주)신우오토모티브와 MOU 체결

포항시는 23일 포스코국제관에서 민선6기 이후 현재까지 투자협약(MOU)기업 25개사 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6기 이후 MOU를 체결하고 기업투자를 완료하거나 공장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의 CEO들을 초청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담회에 앞서 (주)신우오토모티브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이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주)신우오토모티브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프로, 현대제철(주) 포항공장 등 국내기업 20개사와 한국유전(주)제철, 중국 태부중장비 그룹 등 외국기업 5개사 CEO가 참석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이병석 국회의원, 이철구 시의회 의장,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관리공단,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한국노총포항지역지부 및 블루벨리 LH사업단, 경제자유구역 시행사 등 각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포항시와 MOU를 체결한 (주)신우오토모티브는 장기면 금오리 429 번지에 부지면적 2088㎡(632평), 시설면적 1553㎡(400평) 규모로 오는 2016년 2월까지 54억원을 투

자해 자동차용 변속기바디, 펌프바디를 생산해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는 50억원 규모의 추가 증축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산업인력 최우선 고용 및 공장 건축시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장비사용 등 상호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프로, 금창엔지니어, (주)현대제철 포항공장, 한국유전(주)제철, (주)비엠지 5개 우수 기업체 대표 대상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민선6기 경제분야 역점시책, 2015 기업지원정책 외부평가, 2015 제도개선 수범사례, 포항시 산업단지 및 교통인프라 등

포항시 전반적인 투자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했으며, 특히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은 블루벨리 국가산업단 내 울산-경남권의 자동차부품업체 유치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단 내 자동차 부품업종 유치 규모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기업 대표들의 소감을 청취하는 한편 2015년 올 한해 투자유치현황을 돌아보고 2016년 투자유치 방향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혁동 기자

## 동해안 5개 시·군, 공동번영 맞손 잡아

### 관광·공공시설 공동활용 방안 특산 먹거리 공동브랜드 개발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동해안 5개 지자체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 행복생활권 실무협의회가 지난 22일 경주시청에서 열렸다.

협의회에는 지자체의 실무담당 과장 등 20여명이 참석, 동해안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주민체감향상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난달 24일 해당 지자체장들이 모여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창립 총회' 때 언급됐던 협의회 명칭 변경, 어항 내 모래 채취 허가사항, 관광 및 공공시설 공동 활용 방안

등 당면 현안사항을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

또한 5개 시·군의 공감대 형성으로 '동해안 발전 SOC사업 공동대응 성명서 추진', '동해안 특산 먹거리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현재까지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들도 검토가 됐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를 동일 생활권으로 연계, 협업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종전 '5+2 광역경제권' 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자율과 협의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윤용찬 기자



## 경주시, 내 고향 쌀 팔아주기 서울 행보

경주시는 지역의 우수한 고품질의 쌀 소비를 촉진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난 2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고향 쌀 팔아주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재경 경주향우회 최병윤 회장,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 백승관 한우리코리아 대표 등 출향인사를 비롯한 농협관계자,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 쌀 사랑 홍보 판매행사를 가졌다.

올해는 예년에 없는 좋은 날씨로 벼농사가 풍년으로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량이 감소, 수입 쌀 증가 등으로 공공비축미 수매, 농협, 대형마트 등으로 다량 판매에도 지역은 물론 국가적 소비량 감소 등으로 지역의 쌀이 남아도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이는 쌀 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쌀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주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이사금을 비롯한 고품질의 쌀을 서울 대도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판매 개척 등을 위해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행사와 함께 고향 쌀 팔아주기 홍보대사로 나섰다.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재경향우회 회원들은 어계피와 현수막을 제작하고 행사장을 찾은 회원은 물론 삼정호텔 이용객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주의 우수한 청정 쌀 판매·홍보 등으로 고향 쌀 200포대(20kg, 시가 1천만 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한 향우회 회원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주문 신청서를 받는 등 고향 쌀 소비촉진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윤용찬 기자



## 영덕대계거리, '2015 한국관광의 별' 선정

### 영덕대계거리 전국서 인정 받다

영덕군 '영덕대계거리'가 지난 2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5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관광한대 음식부문의 최종 수상지로 선정돼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2015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국내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선정하

는데, 전국 광역시·도 및 전문가가 추천한 후보와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평가와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영덕대계거리'는 영덕의 대표 특산물인 대계요리 음식점 170여 개소가 밀집돼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대계 생산·유통지이자 소비시장으로 영덕대계를 맛보고 즐기기 위해 지난해 약 284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2005년 영덕대계특구로 지정돼 상가

외벽에는 다양한 간판과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찜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 또한 영덕대계거리의 볼거리가 되고 있다. 대계조업기간에는 대계 경매가 이뤄지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다리가 곧게 뻗은 대계들이 줄 맞춰 크기별로 나열돼있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동해안 최고의 탐방로로 일컬어지는 영덕블루로드 빛과 바람의 길(A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한 이 곳은 해맞이공원, 풍력발전단지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좋고,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매년 4월에는 영덕대계를 소재로 하는 영덕대계축제가 개최돼 영덕대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승건 기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바다 **놀러**  
**KTX** 타고 **포항**으로 오세요.

포항운하,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호미곶 일출

포항 - 서울

poohang 포항시

#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7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김영석 영천시장은 24일 오전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 참석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24일 오후 경산시립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 경산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대회'에 참석한다.

## ‘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경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경산시는 경북도가 발표한 자체감사활동·부패방지시책추진 분야의 업무개선 등을 고려해 감사 업무 수준의 질적 향상과 조직역량강화 전반을 확인한 '2015년 자체감사활동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2015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에서도 도내 2위를 달성했다.

이는 연중 실시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사업규모,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정확성 등을 엄정하게 심사해 부실공사 방지 및 각종 공사민원 최소화해 재정절감 등에 기여한 결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도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함으로써 청렴도시 '경산'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신경운 기자

## 경산 동진산업, 이은결 매직콘서트 티켓 기증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300명

동진산업(사장 신경식)은 지난 21일 경산시청을 방문,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300명에게 오는 25, 26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이은결 매직콘서트 티켓 300매를 전달했다.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동진산업(사장 신경식)은 산업, 포장용 제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년째 한길로 가고 있는 관내 중견기업으로 평소 문화체협의 기회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작년에 뮤지컬 그리스에 이어 2회 연속 이맘때면 공연 티켓을 기증하고 있다.

또한 기증받은 이은결 매직콘서트 공연 티켓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산시 드림스타트 이용아동에게 골고루 배분될 예정이다. 신경운 기자

## 고령군, 귀농인 1:1밀착형 현장컨설팅 실시

귀농인 멘토링 교육 수료

고령군은 지난 10월27일-12월22일까지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 15회 총60시간의 귀농

인 멘토링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식을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귀농인 멘토링 교육은 최근 관심이 고조돼 가고 있는 귀농·귀촌 이해를 돕고 지원정책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과 안정적 농촌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한국여가연구소 윤재섭 박사의 귀농·귀촌 활성화의 필요성과 농촌 여가생활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특강을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 됐다. 김양수 기자



# 영천시민 백세인생 우리가 책임진다



## ‘친절, 안전, 청결’ 영천시민 건강지킴이 체육시설사업소

탁 트인 전경, 신선하고 맑은 공기. 마천산 기슭에 위치한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위를 잊은 시민들로 북적인다.

2006년 준공 이래 매일 1600여명의 회원들이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있다. ‘친절, 안전, 청결’의 슬로건 아래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는 시민의 건강한 백세 플랜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천생활체육관, 금호체육관에서 10여개의 동호회 회원들이 탁구, 배드민턴 활동을 즐기

고 있으며, 테니스와 국궁을 배울 수 있는 시민테니스장과 궁도장의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지수와 함께 지역 생활체육 수준을 높이고 있다.

영천시민운동장은 축구 및 육상 선수들의 기량향상에 최적화된 장소로, 해마다 국내외 전지훈련팀이 찾아와 훈련장으로 애용하고 있다. 합숙소인 런닝클럽가 운동장 내에 마련돼 있어 선수들의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하며,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육상팀을 유치해 영천시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대구대총장기 전국고교검도선수권대회, 문화체육부장관기탁구대회, 독도수호태권도대회, 전국꿈나무수영대회 등 굵직한 전국대회를 개최해, 영천시 홍보효과와 아

려 영천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도 마련돼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농구·탁구·재즈댄스·스쿼시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마련해줘, 또래친구들과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우병구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우리 영천시 체육시설사업소는 백세시대에 시민들의 건강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단위 및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부자영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일만 기자

## 영천시, 여성·아동 안전망 셴테드로 마을안전 책임진다

영천시가 셴테드(범죄예방디자인)를 통해 안전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

영천경찰서에서 환경개선 및 첨단방범 시스템 구축으로 여성·아동 보호에 주력하기 위해 조성한 여성·아동안심구역인 영천중앙초등학교 일원에 옹벽 디자인 개선, 귀갓길안심이,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등을 설치해 우범지대 환경개선에 앞장섰다.

영천중앙초등학교 주변은 학교 및 아파트, 원룸 등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아동과 여성의 통행량이 많으나 범죄에 취약한 환경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컸던 곳이다.

이에 여성·아동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천중앙초등학교 옹벽부에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말과 비행기 오브제와 LED조명을 설치해 주변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대상지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로 경관불량지역을 정비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 사전 범죄 발생 여건을 최소화 했다.

또한 귀갓길 안심이는 구역 내 위치한 전주에 50-100m간격으로 BLE시스템(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근거리 무선통신)을 부착해 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면 미리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위치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안전취약자들과 그들의 보호자 사이에 편리하게 위치정보를 공유, 사고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과 정우동 영천경찰서장은 “셴테드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범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만 기자

## 청도군 군정성과 알찬 결실 맺다

행정력이 빛난 한해 평가  
행정전반 26건 기관수상



2015년도는 청도군의 행정력이 빛난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새마을, 재난관리, 민원행정, 건축행정, 식품위생, 공유재산, 체납정리, 전통시장 활성화, 반시특구, 투자유치 등 전 행정 분야에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도군은 2015년도에만 무려 26건의 기관 수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수상 사업비는 2

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3건, 고용노동부 1건, 한국경제·미래창조과학부 1건, 중소기업청 1건, 경북도 20건의 수상실적을 남겼다.

특히 어려운 위기속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공공기관 창조경영부분에 2015 올해의 CEO대상, 나눔과 실천의 자원봉사부분에 대통령상, 음식문화개선사업평가 4년 연속 기관상 수상으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됐다.

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기록한 것은 직원들의 땀방울이 모인 성과이며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승부한 결과로 청도군의 행정력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한 발전의 잠재력과 발판이 되리라 여겨진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수상에 따라 5만 군민과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누며, 2016년에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용규 기자

## 칠곡군, 주민 공감 입시설명회 열어

‘칠곡군만의 입시전략·소통콘서트’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칠곡군은 지난 22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칠곡군만의 입시전략 및 소통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윤일현(지성학원 이사장) 강사를 초빙해 2017학년도 대입 준비생인 고교2년생과 장차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 부모들에게 칠곡군만의 입시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단순 입시전략 설명회가 아닌 ‘꿈과 희망이 있는 삶’이란 부제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 사이에 초청공연을 선보여 음악이 어우러진 활기차고 감동 있는 이색적인 진행으로 학부모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특히 이날 공연은 공립특수학교인 대구성보학교 재학생 및 공립생 등 장애청소년 5명으로 구성된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이 음악으로 희망과 사랑을 담은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이번 입시설명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의응답도 오고갔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면서 현장밀착형 행정을 선보이며 지역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청소년은 칠곡을 넘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단지 공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며, 그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경산

##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얼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산시가  
21세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남유진 구미시장은 24일 오전 상모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하는 제6회 국제장애인 미래 포럼에 참석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24일 오후 김천시청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4일 오전 사별면 두릉리에서 열리는 '두릉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4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0회 군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한다.



김명남 군위군수는 24일 군위읍 용대리 용대보건의료소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군위,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군위군은 지역의 최대현안 국책사업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을 지난해 12월 착공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테마단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지난 2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용역 보고자인 E&P 컨설팅의 삼국유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관리운영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와 삼국유사에 내재돼있는 무한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시작되었다.

이러 삼국유사 콘텐츠를 비롯해 향후 관리운영 방안과 관광기대효과 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제시된 의견은 최종보고회에 반영,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김명남 군수는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관광을 아우르고 우리 민족의 뿌리와 오천년 문화를 대표하는 관광공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구미시는 지난 22일 세무과 민원실에서 시청 방문 민원인과 감사담당관실 직원 외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성실납세자 상품권 전자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추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 중 10만원 상품권은 정기분 지방세인

1월 등록면허세, 8월 주민세, 7월·9월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만8932명 가운데 100명을 추첨했다.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8만7492명 중에서 30명을 추첨했다.

이영환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신 납세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년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전자추첨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외에도 자동차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와 납부"를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김천 '시민대중' 새해 소망 기원

丙申年 새해 시민대중 개방

김천시는 병신년 첫날 일반시민들이 시민대중을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대중 자율타종은 2013년 행사성 경비절감을 위해 제야의 종 타종식을 폐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처음 시작한 이래로 3회째를 맞는다.

작년에는 51명 165명이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소망을 기원하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참여했다.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 연인, 지인들과 함께 팀을 이뤄 3회 타종할 수 있다.

자율타종을 위한 개방시간은 새해 첫날 09:00~12:00까지이며 신청은 김천시문화예



숭회관에 방문 또는 전화(420-7802)로 신청하면 된다.

김천의 힘찬 기상이 서려있는 시민대중의

웅장한 울림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규목 기자

김천시, 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 '최우수' 선정

김천시는 23일 '2015년도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에서 시부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는 시부와 군부로 나눠 정성평가(독창성, 효과성, 전문성, 활용성 등)와 정량평가(심사건수 및 절감률 등)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계약원가심사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호 경쟁에 의한 심사능력 향상 및 시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계약원가심사 업무 우수사례 공유·전파를 통한 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재정절감 및 효율화를 기하고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김천시는 탁월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계약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1억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원가계산의 작성방식, 제경비 효율의 적정성, 표준품셈 작성 및 자재단가의 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부서에서 심사에 사업비를 책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김천시는 원가분석을 통해 205건, 511억에 대한 사업을 심사해 12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된 2009년도 이후 7년간 총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영박 감사홍보담당관은 "다가오는 2016년에도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예산절감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도 강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최규목 기자

상주시,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

추진상황 점검으로 성과 공유 문제점과 대책 논의

상주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장이상 간부공무원, 공약사항추진 담당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공약사항의 세부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7대분야 41개과제, 68개 세부 실천과제로 분류하고, 현재까지 완료 22건 (32%), 정상추진 31건(46%), 부진 15건 (22%)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정백 시장은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감 있는 실천과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공약사항을 추진,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구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추진이 미흡한 공약사항은 보완대책을 수립 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의 재평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상주시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우수상 수상

3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호평

의성군은 지난 22일 경북도 경제부지사실에서 열린 '201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이번 경북도의 평가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 및 기타수범 사례 등 각 시군마다 추진한 실적을 비교·평가해 선정했다.

의성군은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 기업애로해결 박람회 및 정책컨서트 개최로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올해의 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또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

의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맞춤형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등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문경시, 공영·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수탁 관리자 선정

문경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9개소의 수탁자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을 선정, 운영·관리토록 한다.

공영주차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인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주차 후 최초 60분까지는 500원, 이후 30분마다 500원씩을 선불로 징수하며, 1일 정기주차 요금은 6000원이다. 다만 시청 부설주차장 및 시청 인근에 위치한 모전도서관, 여성회관 부설주차장과 제11공영주차장(모전공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며, 1일 정기주차 요금은 7300원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오는 31일 주차관리위원을 공영주차장에 모두 배치, 시험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문경 아리랑 도시 상징의 불 밝혀



문경새재와 아리랑으로 널리 알려진 문경시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겨있는 삶의 노래 '아리랑'의 분향임과 아리랑무형문화센터가 건립돼야할 아리랑의 중심지임을 알리고자 시내 입구에 상징탑을 세우고 불을 밝혔다.

상징탑을 설치한 박순진 점촌1동장은 향후에도 공평삼거리를 아리랑 삼거리로 명칭변경을 검토하고 주변에 아리랑 관련 기념물을 조성하는 등 아리랑 도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밝혀 시가지 입구가 한층 새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재영 기자

Advertisement for YesGumi products including various agricultural goods like rice, soybeans, and vegetable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umi Farm.



# 경북

광역일보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9

## 영양군, 경북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우수상

영양군은 경북도에서 실시한 2015년 통합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건

강증진사업지원단의 심사결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2015년 주요성과로는 전체주민 대상 마을

회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타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역량강화 및 서비스제공인력들과의 소통에 힘썼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만성질환예방, 합병증 예방, 고위험자·환자 등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했다. 이창재 기자



## 영주 예천 청송 영양



장욱헌 영주시장은 24일 영주아울렛에서 개최하는 '여주프리미엄아웃렛 파머스마켓 오픈식'에 참석한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2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는 '2015 예천군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 및 총회'에 참석한다.

## 예천군, 신도시 입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 펼쳐 행정수요 대응 이동민원실 운영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로 입주민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첫 입주 아파트는 경북도청 아이파크로 이동 민원실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2개월간 아파트 단지 휘트니스센터내 북카페에서 운영하며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업무 처리하게 된다.

이동민원실에서는 군청 공무원 2명과 호명면 공무원 1명이 근무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토지관련 민원발급, 각종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힘쓰며 예천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 공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군민이 행복해 하는 행복민원실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황원식 기자



# 3년 연속 지역을 빛낸 '안동 양반쌀'

## 2015 고품질 브랜드 쌀 종합평가 지역을 빛낸 쌀 3년 연속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평가한 2015 고품질 브랜드 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안동농협 안동라이스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15 고품질 브랜드 쌀 종합평가에서 '지역을 빛낸 쌀'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품종·품질평가를,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문가 식미검사를 하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 등 10개 소비자단체로 이뤄진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패널 식미검사 및 현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대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

안동농협(조합장 김문호)은 그 동안 품질이 뛰어난 쌀을 생산하기 위해 품종 선택에서부터 재배, 건조, 보관,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특히 하절기 미질 확보를 위해 저온창고를 증설해 연중 균일한 밥맛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생산된 서안동농협

쌀은 풍부한 식감과 깊은 맛으로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8월 현장평가 시 심사위원들이 서안동농협 안동라이스센터의 쌀 생산과 미질 관리시스템에 만족했으며 평소 품질관리와 매장관리에 성실히 노력한 과정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번 평가가 앞으로 안동 양반쌀의 홍보와 판매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에는 안동시, 농업인 함께 노력해 최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 영주무섬마을 '2015 한국관광의 별' 로 뜨다

### 관광의 별 3관왕 영주, 전국최다 선정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진 영주시 무섬마을이 관광한대 부문중 '숙박' 분야에서 '2015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국내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국의 관광지를 숙박부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는 것으로서, 영주시에서는 소백산자락길(2011년), 선비촌(2012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무섬마을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의 별' 지정으로 명실상부한 관광의 메카로 부상했다. 그동안 영주시와 무섬마을에서는 관광객 유

치를 위해 경관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 무섬마을의 역사와 생활·문화 등의 자료 전시관과 숙박 및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및 전통혼례 재현을 위한 전통체험수련관을 운영하고, 자연 문화경관과 연계한 문화생태 체험관광지 조성,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을 통한 명품 자전거길, 트레킹 코스 개발 등의 볼거리와 무섬골 동반, 선비정식 등의 전통 먹거리, 무료 Wifi 서비스 제공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2015한국관광의 별' 수상을 계기로 무섬마을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섬전통마을 보존회(회장 박승)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편안한 전통한옥 숙박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기로 하고 전담대 설치, 무섬윤도박물관 조성 등의 새로운 볼거리와 주차장 확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을 3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무섬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놀이 마을로 강변의 넓은 백사장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외나무다리를 중심으로 물과 섬을 잇는 다리처럼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여채의 전통가옥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영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명승지다. 전상기 기자

##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홍보대사 3명 1차 위촉장 수여

예천군은 23일 군수실에서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 홍보대사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보대사는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에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덕망이 높은 전·현직 교육자, 출향인 단체 임직원 중에서 엑스포 홍보를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3명에게 1차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대사는 '2016 예천세계곤충엑스포'가 끝나는 내년 8월까지 대도시 향우회 등에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급

학교에 방문해 교육운영계획 반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엑스포 홍보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이현준 군수는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원식 기자

## 청송군, 추운겨울情으로 가득한 돼지고기 나눠요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상임농장 이배영 대표는 지난 17일 관내 저소득·취약가구에 전달 해달라며 돼지고기 350박스(350만원 상당)를 청송군에 전달했다.

이배영 대표는 "추운겨울 지역 내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고기를 기증하게 됐다"며 매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청송군자율방범대에서는 이웃을 보살피는 마음에 함께 하고 싶다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산타가 돼 350가구에 가가호호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면서 고기를 배달해 주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안덕면에 사는 박모 할머니는 "맛있는 고기를 제공한 상임농장사장님과 추운 밤에도 집집마다 직접 배달을 해주는 자율방범대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창재 기자

##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폐회

봉화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22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봉화군 경관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개입정보보호를 위한 봉화군의회원신분증규칙 등 일부 개정 규칙안(원안가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가결) △2015년 행정사무감사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기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약화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중점 심사해 총 13건의 사업 24억7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한중FTA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4억6796만3000원 및 예비비 203만7000원을 증액했다.

또한 군정질문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봉화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내년도 군정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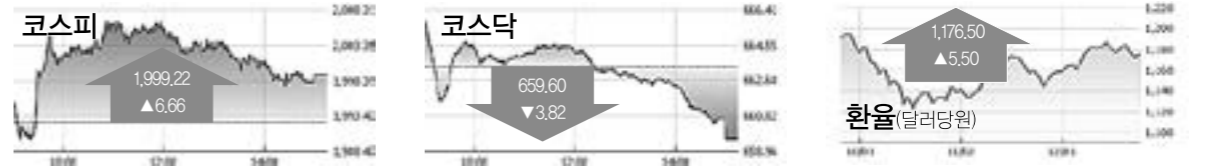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산리휴양도시 봉화

www.bonghwa.go.kr | 대한민국에는 북악도시 산리휴양

창정 봉화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자연 농특산물을 맛보세요!  
산이 많아 나무가 많고, 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봉화! 천혜의 산수와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이 태고의 멋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화군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더욱 우수한 친환경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 2015년 대구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3대 핵심 목표를 달성

대구시는 '2015년 대구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를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및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6시, DTC(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사회적경제 추진 사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경제 추진사업 성과보고 및 5개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발표를 비롯해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15년 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와 활동과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다양하게 진행했던 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공유하며, 올 한해 대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을 초청해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대구시는 2015년을 대구 사회적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적경제 도시,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등 3대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기업수가 작년 말 기준 516개에서 올해 11월 말 615개로 100여개 증가했고, 일자리는 작년 말 기준 4700여명에서 올해 11월 말 6200여명으로 1500여명이 증가해 서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은 현재 470억 원으로 대구경제의 GRDP 대비 0.1% 규모까지 증가해 정량적으로 대구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민·관 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추진체계가 갖춰지고, 가치확산을 위해 추진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및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등 홍보 행사에 시민 3만여명이 참가했다.

직무·창업교육·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인재양성 교육을 통해 300여명의 지역리더들을 배출했고, 특화자원 발굴 70개, 장인대회 아이디어 20개, 특성화 모델 10개 등 총 100여개의 자원을 발굴해 대구만의 독특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개발해 대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큰 그림들이 그려졌다.

기업성장을 위해 개소한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장터 운영 등을 통한 판매액이 15억2000만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 보증도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중에 있다.

대구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내년을 대구 사회적경제 기틀이 완전히 정착하는 해로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수는 현재 615개 기업을 800여개로 확대하고, 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매출액은 현재 2배 규모인 9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며, 기 발굴한 지역의 각종 사회적가치 및 특화자원 100여개를 중심으로 창업교실, 아카데미, 장인대회 등을 거쳐 대구형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로 적극 육성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 대구 디자인리뉴얼센터 “지역 경제 한 축 된다”

자원재활용을 통한  
신소재성장 중심 역할 수행



인으로 재생과 자연감성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했다.

주 출입구에는 소음 차폐를 위한 경관 조경과 휴게테라스 및 휴게공원으로 이어지는 편의공간을 마련했으며, 외부바닥은 잔디블럭·화강석·목재데크 등 포장패턴에 의한 경관을 연출하고, 옥상 정원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대구시 건설본부 이준우 건축기전부장은 “이번 디자인리뉴얼센터 건립으로 자원재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증대해 지역산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대구시는 서구 평리동 위치했던 가정법원 후적지에 자원재활용을 통한 산업화 연구 중심기관이 될 ‘디자인리뉴얼센터’를 준공했다.

“디자인리뉴얼센터”는 섬유 부산물인 폐원단 및 잉여원단을 사용해 수명이 다한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 높은 상품가치를 지니는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센터다.

2014년 12월 착공해 공사비 58억원을 투입, 부지 2645㎡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38㎡ 규모로 2015년 12월말 준공, 2016년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자원재활용 상품개발 및 전시공간, 리뉴얼 교육장, 시제품제작실, 봉제관련 입주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건물외관은 최소한의 변화를 추구한 디자

## 2015 대구·경북 올해의 중소기업상 시상식 개최

올해를 빛낸 지역 강소기업  
9개 부문 11업체 선정·시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매일신문,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2015 대구·경북 올해의 중소기업상’ 시상식을 23일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의 중소기업상”은 매년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중소기업에게 경영의욕 고취와 바림직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시상하는 의미 있고 명예로운 상이다.

대구·경북중기청이 1999년부터 단독 시상해오던 ‘모범 중소기업상’을 2013년부터는 매일신문, 대구은행과 공동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조혁신 부문을 신설했고, 중소기업청장 표창인 종합대상을 수여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 최고의 권위 있는 중소기업 포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2015 대구·경북 올해의 중소기업상’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는 (주)하나텍스(김선일

대표)가 수상했으며, 기술·경영혁신 부문 (주)테크엔, (주)이시스, 동반성장 부문 (주)동아티오엘, 소상공인 부문 임크21, 수출기업 부문 (주)디케이에스코리아, 여성기업 부문 (주)보경직물, 착한기업 부문 (주)행복한세상, 창업기업 부문 (주)네오피지오텍, 창조혁신 부문 (주)에나인더스트리, (주)세종아이에스 등 총 9개 부문에서 11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대구·경북지역 최고의 기업이라는 영예와 함께 매일신문 게재를 통한 수상업체 홍보, 대구은행 연신지원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흥빈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올해의 중소기업상 수상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높은 자긍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크리스마스 “달콤한 케이크와 함께하세요”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2층 식품관에서 크리스마스 홉파티, 연말파티에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루돌프 치즈케이크, 눈사람 타르트, 트리타미수 등을 1만6000원부터 3만원대에 판

매한다. 파티에 곁들일 수 있는 와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 까베르네 소비뇽, 레세르바 등 올해 베스트 와인을 비롯해 파티용 스파클링 와인 등을 1만원의 균일가에 판매한다.

행사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진행된다. 자유현 기자

롯데백 대구점,  
클리어런스 ‘10대 상품전’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오는 27일까지 연말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대의 베스트 아이템을 엄선한 ‘클리어런스 10대 상품전’을 진행한다.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을 대비해 코트나 티셔츠, 가죽장갑, 앵클부츠 등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멋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별 아이템을 추천한 것으로 여성을 위한 라인 코트는 17만4000원, 남성을 위한 본의 턱다운점퍼는 23만9000원, 에디션 니트와 면바지는 각각 6만9000원과 7만5000원, 매트르스티 퍼플러와 가죽장갑은 3만원, 금장제외의 앵클부츠는 14만2800원에 판매한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자선대바자 인기 아이팀 특별전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은 24일부터 30일까지 1층 특별매장에서 지역 사회복지법인 육주복지회와 함께하는 ‘15년 자선대바자 인기 아이팀 특별전’ 행사를 진행한다.

디스커버리·밀레·텐디·코모도스퀘어 외 총 30개 B/D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운 점퍼나 여성 패딩, 남성 코트 등을 최대 70% 할인한다. 또한 레핑차일드 아동복 매장에서는 스키복세트를 9만9000원에 균일가로 판매하고 스와로브스키의 베스트셀러인 브로치·귀걸이 세트도 30~6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는다. 기간 중 크리스마스 맞이 산타&루돌프와 포토타임 및 2016년 타로운세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자유현 기자

## LH,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270명 장학금 수여

12월 21일, 진주 본사 경남권 대학생 초청 장학금 전달 행사 대학생 120명, 중·고등학생 150명 등 전국 270명에게 수혜 지역상생차원에서 경남지역에 전체의 20% 이상 배정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1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본사사옥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270명에게 각각 100~150만원의 장학금(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자녀가 비싼 등록금 부담과 생활비 마련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털고 학업에 전념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LH는 지난 7월 임대료 고지서 뒷면에 후원 기업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 3개 민간기업 및 주거복지

재단이 공동으로 참여, LH 사회공헌기금을 포함한 총 3억 5000만원의 장학자원을 마련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LH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120명과 중·고등학생 150명 등 총 270명이며, LH 본사의 경남진주 이전에 따라 지역상생차원에서 경남지역에 전체인원의 21% 수준인 57명을 배정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는 대학생 10명, 중고등학생 11명 등 총 2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LH 신홍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금의 학업·취업문제 등 여러 고민 때문에 삶이 벅잡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슴 속에 큰 꿈을 갖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LH가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LH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공적역할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생활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엔 시행한 장학금수여와 디지털 도서관 운영 등 교육·육아지원, 어린이 급식 등 급식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입주민 합동 결혼식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자립지원 등 5개 범주 30여종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LH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확보와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대구농협, 상호금융 고객만족대상 9연패 달성

농협대구지역본부 9년 연속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고객만족대상’ 시지역본부 1위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1위를 지켜온 비결은 연초부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CS실무교육과 직원마인드교육은 물론 끊임없이 현장교육을 실시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농협의 친절서비스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의 CS모니터 요원이 연간 4회에 걸쳐 22개 항목별로 평가한다. 모니터 요원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직접 상담도 하고 전화문의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대구농협 안홍기 본부장은 “상호금융 고객



만족 컨설팅 9연패의 쾌거를 달성해 기쁘기 그지없다”며 “친절서비스 평가 9연패를 달성한 만큼 고객만족과 고객감동 경영을 통해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 경북지식재산센터, 해외권리화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23일 하반기 마지막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총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IP Star 기업인 (주)폴머(대표 박봉국)는 유럽 35개국 출원을 해 올해 경북지식재산센터 지원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해외특허를 확보하게 됐다.

(주)폴머는 영전에 위치한 단열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3년부터 난연재 연구를 시작해 ‘프로폴’이라는 신개념의 난연성 단열재를 개발해 성공, 생산하고 있다.

기존 단열재는 원재료인 폴리스티렌을 가열·팽창시켜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형성한 후 다시 성형기를 통해 생산한다. 그러나 (주)폴머의 ‘프로폴’은 발포 폴리스티렌 입자 하나하나에 자사가 직접 개발한 난연재를 코팅 처리하는 공정을 추가해 생산한다. 따라서 화재시 폴리스티렌의 연소를 막아 유독성 가스 발생을 방지한다.

건물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0% 이상이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한 질식사인 점을 고려하면 (주)폴머가 생산하는 ‘프로폴’의 기술력과 향후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업은 현재 국내 건축 난연재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중국은 2014년도 진출해 생산공장 3기까지 완공해 제품을 생산중이며, 유럽은 이번 해외출원을 바탕으로 현지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경북지식재산센터 정영훈 센터장은 “대기업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다. 즉, 지식재산권 확보가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이며 전략적인 사업화의 관건인 만큼 수출기업들은 반드시 지식재산권을 고려한 기업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동 기자



## 대구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소통 평가 전국 1위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국민신문고 민원소통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교육청은 종합평가 88.8점으로 '매우우수' 평가 등급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소통 평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족도향상 정도, 추가답변율, 조정민원 처리율, 이송정확도, 이송시간 준수, 민원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실패 점점으로 구분해 운용 수준을 평가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과학대학교, 직장 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대구과학대학교는 23일 교내 세미나실에서 교수와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인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이명옥 소장을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지금 바로 관심의 온도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성폭력·가정폭력의 개념 △성폭력·가정폭력의 발생원인, 특성, 실태 △폭력의 사회구조적인 무관심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법과 제도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우리의 자세 등 직장이나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알기 쉬운 강의로 진행됐다.

박효석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가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기관인 우리대학교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자 예방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편안하고 건전한 직장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행복e든 나눔 축제'

###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은 지난 22일 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행복e든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남성의 총장과 배광식 북구정장, 하병문 북구의회위원장 등 내·외빈 관계자와 어르신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대구보건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인 연중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을 위한 수료식, 축하공연, 참석 어르신 발표회, 열린 감사 페스티벌과 시상식 등으로 이어졌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 장경은(42·사회복지과 교수) 단장은 "올 한해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서치유서비스와 청춘은 60부터 등 두 가지 사업을 펼쳤다"며 "오늘 행사는 어르신들의 자아통합 감을 높여드리기 위해 마련했는데 모두 즐겁게 어우러지는 흥겨운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경북대 소프트웨어(SW)교육센터 개소식 개최

대학 전반의 소프트웨어(SW)교육을 총괄할 경북대 SW교육센터가 문을 연다.

경북대학교는 'SW교육센터 개소식 및 SW중심대학 현판식'을 12월 23일 정보전산원 4층 SW교육센터에서 손동철 경북대 총장 직무대리, 권은희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국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상홍 센터장, 대구시 교육청 권용택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경북대는 지난 10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SW중심대학에 선정됐다. SW중심대학은 대학교육을 SW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학생·기업·사회의 SW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중고생 및 일반인 대상의 SW 가치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이다. 경북대를 포함해 8개 대학이 선정돼 향후 최장 6년간 10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SW중심대학 선정으로 경북대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해왔던 SW관련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 전반의 SW 기초·융합·전공 교육을 총괄할 SW교육센터를 설립했다.

경북대는 SW교육센터를 통해 미래 SW산업을 견인하는 SW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전교생 대상 SW교육을 의무화하고, 5개의 연계전공을 신설해 실질적인 SW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손동철 경북대 총장 직무대리는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SW캠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SW교육센터를 거점으로 경북대학교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 대구교육청, 내년 황금유치원 등 18개 학교 개교

단설유치원 8개, 초등 7개 중학교 3개 등 18개 학교 3월에 유·초·중학교 15교 9월에 초등학교 3교 개교

대구교육청은 2016년에 공립 단설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7개교(속천초 휴교 복교 포함), 중학교 3개교(포산중 이전 포함) 등 전체 18개 학교가 대구 지역에 조성되는 대구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입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별로 보면, 달서군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DGIST, 대학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산업체 및 공동(단독)주택 1만8000여 세대가 건립될 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해 2016년 3월에 대구비슬유치원과 대구비슬초등학교를 우선 개교하고 9월에 '테크노4초(가칭)'를 개교할 계획이다.

중학교는 2016년 3월부터 기존의 포산중학교를 테크노폴리스 내로 이전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현재 이 지역에서 단성 중학교로 운영 중인 현풍중(남) 또한 남녀공학으로 전환, 학교 간 적정 배치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포보금자리 주택지구에도 공동주택 6000여세대가 건립될 계획에 따라 2016년 3월

에 대구육빛유치원과 대구강림초등학교를 개교, 학생배치에 적정을 기할 예정이다.

그 외 대구죽곡2택지개발사업지구와 서재세천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대구대실유치원과 대구대실초등학교, 대구세천유치원과 대구세천초등학교를 각각 개교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월배지역에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3월에 조암중학교를 개교하고, 9월에 대구용천초등학교를 개교한다.

동구에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유입 중학생 배치를 위해 혁신도시 내 새론중학교를 3월에 개교하고, 초등학교는 9월에 현재 휴교 중인

대구속천초등학교가 복교될 예정이다.

유치원은 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위 개발지역에 개원하는 단설유치원 4개원 외에, 인근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통해합해 단설유치원 4개원(자연누리유치원, 황금유치원, 경상유치원, 상원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에년에 비해 2016년도 신설학교 개교가 많긴 하지만 개교사무 취급 학교장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설학교 개교준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개교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개교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넘사벽 그 높은 장애의 벽을 뛰어넘다

경북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경북교육청은 2015년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5개팀의 장애학생 문화예술동아리를 운영했다.

장애학생이 주축이 돼 비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어울림 동아리와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은 장애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은 물론 학교와 사회의 장애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일고등학교의 '영일신나타'는 영일예술제에서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초청,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난타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는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특수교사, 일반인으로 구성된 안동진명학교의 '해바(Happy Virus)'는 외로운 분들을 위로하는 봉사공연을 통해 사랑나눔을 실천했 뿐 아니라, 대구경북장애인예술제에 참여, 은상 수상, 전국장애인 행복 페스티벌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우현 기자

## 2015 생활지도담당부장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숍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대구과학대학교 영송문화관에서 대구시내 전 학교 생활지도담당부장과 대구지방경찰청 관내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다.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 모두 모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워크숍은교사들에게는 학생지도의 전문성 강화를, 경찰관에게는 학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경찰과 학교 간 분인 토의를 통해 상호간에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에서 40명의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이 평균 12내지 13개교를 맡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에는 우동기 교육감이 직접 참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수고한 우수 학교전담경찰관 및 유공 교사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그간의 활동을 치하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지역 경찰서가 모두 학생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학교폭력은 물론 비행이나 흡연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안동대학교 2016학년 정시모집 선발

24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전체 49개 모집단위에 수시모집 이월인원 포함 총 786명 모집

국립 안동대학교는 201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를 오는 24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동대학교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전체 49개 모집단위에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포함한 총 786명을 모집한다.

가, 나, 다군 모두에서 모집을 실시한다.

'가'군은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체육학과에서, '나'군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미술학과에서, '다'군은 음악과에서 모집한다.

전형방법은 학과별로 수능성적·학생부, 실기고사 등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률을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모집단위를 선택, 지원해야 한다.

안동대의 경우 반영지표는 백분위 성적이며, 문·이과 구분없이 계열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므로 고등학교때의 문·이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실기고사는 '가'군 체육학과는 2016년 1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나'군 미술학과는 1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다'군 음악과는 1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지정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또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가, 나, 다군 모두 1월 28일 오후 3시 안동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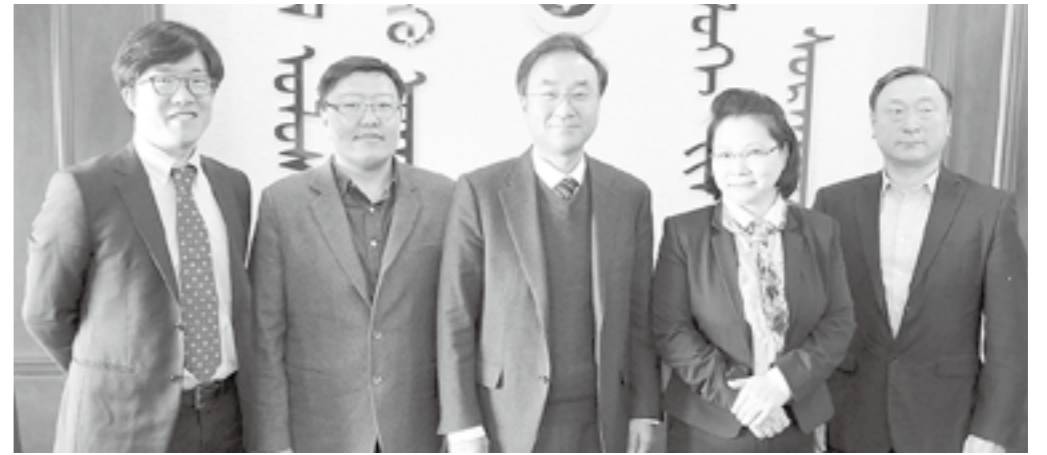
합격자 등록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2월 2일 오후 5시까지 안내된 등록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동일군 내 중복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군이 다른 경우, 가, 나, 다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박기석 안동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정시모집의 전형이 수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능성적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안동대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시에서도 교과성적을 상당부분 반영하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해 지원전략을 수립한다면 합격권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대는 총 7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와 4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학생수는 1만여 명이다. 특히,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28.1명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김용구 기자

## 대가대, 몽골 6개 교육기관과 교류협약



의료, 바이오, 농업 분야 등 교류활동, 학생·교수 교환 공동학위 프로그램 실시 협약

대구가톨릭대는 최근 몽골의 3개 대학, 3개 고교 등 6개 교육기관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섰다.

대가대는 몽골국립 과기대와 비타민나무 등 고품질 식품 등에 대한 연구 협력을 약속했다. 또 대가대 중앙기센터 및 GLP센터 등과 연계해 시설 장비 관련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몽골국립 농업대와는 헬스, 바이오리소스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학생 및 교수 교환, 2+2 공동학위 프로그램 실시 등을 협약했다.

몽골국립 의대와도 의료진의 연수 및 공동연구 협력을 약속했다. 몽골의 3년, 11년, 77년 고등학교와는 한국어 수업 개설 지원을 골자로 향후 대가대 유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교사연수 등을 약속했다.

남중문 대가대 국제처장은 "몽골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 3위 국가에 해당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향후 대학 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두 국가의 가교 역할을 해줄 우수한 인재가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운 기자

# 여성 문화

광역시보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12

## 연예가 소식

송민서, 헬스장 민폐녀 등극?  
풍만 볼륨감+매끈 보디라인



송민서의 헬스장 인증샷이 화제다. 배우 송민서는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장통 이겨내기 프로젝트! 배터지게 먹고 숨 넘어가도록 뛰기"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송민서는 헬스장 거울을 보며 셀카를 찍고 있다. 그의 밀착 트레이닝복에 드러난 풍만한 볼륨감과 빼어난 보디라인이 시선을 끈다. 누리꾼들은 "송민서, 정말 예쁘네", "송민서, 몸매 대박", "송민서, 장난 아니다", "송민서, 몸매 최고" 등 반응을 보였다.

홍예슬, 흰셔츠만 입고

하의실종 패션 섹시+청순



홍예슬이 '택시'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의 화보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개그우먼 홍예슬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 속 홍예슬은 남자들의 로망인 흰 셔츠만 입은 하의실종 패션으로 앉아있다. 그는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과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홍예슬은 지난 22일 방송된 tvN '택시'에서 개그맨 유민상에게 대시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 글을 올렸다.

'치즈 인 더 트랩' 김고은 시스루 입고 의자 위에서



'치즈 인 더 트랩' 김고은의 화보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고은은 과거 패션지 보그 화보를 통해 섹시한 매력을 선보였다. 공개된 화보에서 김고은은 블랙 시스루 의상을 입은 채 의자에 걸터앉아있다. 쪽뽕은 각선미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김고은은 '치즈 인 더 트랩'에서 박해진, 이성경 등과 호흡을 맞춘다.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성실히 하면서 내일을 기할 때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호가 열릴 운. 경계명등을 조심한다면 남동쪽에서 돕는 자 나타날 듯. 애정은 남자가 애태울 수. L·O·P·P 성씨를 조심

새로 시작하는 일이 초에는 고전이 예상되나 귀인의 도움으로 사사히 풀리는 운이다. 한꺼번에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대성할 수. K·A·H 성씨 사물지 말고 작은일도 신중히 대처하면 큰 이득이 있을 듯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 계획된 일을 진행하면 도움의 손길이 지혜를 줄 듯. 자만은 버리고 필요 이상의 걱정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2·8·9월생 북·남쪽 사람과 협력을 이룰 때 큰 성과 따른다.

계획이나 사업전망 모두가 밝다. 능력이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갈 때 내일의 밑거름이 될 운이 있다. 장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많지만 금전문제로 고심에 빠지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구나. 1·2·3월생 경정은 피하고 푸른색으로 단정하라.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짜증스러워도 참고 인내할 때 승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맘 풀린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얻는 법. 오늘은 일석의 날이 될 듯. S·O·P 성씨 사업구상도 좋지만 기정에 한 번쯤은 뒤돌아보며 시간을 가져라.

이기심으로 행동한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격. 때론 사람 못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며 주변을 정리함이 금전과 명예를 얻을 듯. 인일한 생기는 역경을 부르니 경각운동은 삼가. 2·10월생 주위의 충고 귀담아들 것

이성문제로 골치 아프거나 동업자에게 불화가 예상되니 각별히 유대관계에 신경 써야 할 때다. 특히 용·개·양띠를 가까이 하지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화근이 따를 듯. 때가 되면 만큼 차신에 신경 쓰고 책임에 임하라.

용이 있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던 일 지연됐다. 방황하지 말고 혼자서 처리할 줄 아는 지혜야말로 후일 후배의 이득이 생길 듯. 1·4·9월생 자만은 금물이며 주위의 충고를 귀담아들 것. 서비스업 종사자는 각별.

안날을 열어가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남·서쪽에서 도움 줄 자 나타나니 몸과 마음이 풍요롭구나. 애정은 빨리 단 쇠가 빨리 식는 법.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진행하라. 8·10·11월생 경정은 자신을 나타내는 색임을 알라.

열심히 하려는 자는 주위의 인정을 받고 금전적인 도움도 얻지만 애정문제는 사소한 일에 불만을 갖게 될 듯. 3·5·9월생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수양에 힘써라.

경쟁을 억제하고 조용한 속에서 실속을 찾음. 이 줄을 듯. 급한 마음을 버리고 사색할 때 새로운 지혜가 큰 힘이 돼 이득이 생길 운. O·B·O 성씨 금전문제는 친구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할 때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길 때 많은 이득이 있으나 더 큰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재산 줄이는 격. 인생은 순리대로 따라야 만이 가정도 사업도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음을 알라. L·O·P 성씨 건강조심. 육체 피로가 큰 화를 부를 수.

# 제3회 Sky Rail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 개최

## 금상 박홍순 씨 '아침 빛 받으며'

'Sky Rail 전국 사진공모전'에서 박홍순씨의 작품 '아침 빛 받으며'가 영예의금상을 차지했다. 사진공모전은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3호선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우수한 작품을 발굴, 시정 및 도시철도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번째로 열린 'Sky Rail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식은 지난 22일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열렸다. 'Sky Rail 전국 사진공모전'에는 전국에서 984점의 많은 작품이 접수돼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영광의 금상은 이른 아침 아침 노을 빛을 받으며 고층 건물 사이를 달리는 3호선의 이

국적인 모습을 포착한 박홍순 씨의 '아침 빛 받으며'가 선정돼 대구시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은상은 3호선이 지나는 대구 외곽을 배경으로 가을걷이에 탐울리는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한 김상석 씨의 '가을을 달린다', 4개의 정류장을 배경으로 야간에 슬로 셔터로 촬영한 정용현 씨의 '3호선 정류장들의 야경'이 선정돼 대구시장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동상은 박영조 씨의 '도시철도 3호선이 달리는 칠곡3지구', 이동진 씨의 'lightrail'이 각각 수상했다. 입상작은 대구시정 및 도시철도 건설 관련 각종 홍보물 등 제작 시 활용, 오는 27일까지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전시 후, 28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도시철도만월당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전시된다. 자유현 기자



'Sky Rail 전국 사진공모전' 금상-아침 빛 받으며(박홍순 작품)

## '찬 바람만 불면 흐르는 눈물'

환자50대 최다, 호르몬 영향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안구건조증 등 '눈물계통의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눈물계통의 장애 진료인원은 252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0만(3.9%) 늘었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년 10-12월 대비 10.8% 늘었다.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선의 지질(lipid) 분비가 안돼 눈물이 빨리 증발하거나, 찬 바람으로 인한 눈물의 증발 촉진,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 조성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19.6%, 70세 이상 17.9%, 40대 15.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2배가량 많았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며 이외에도 과도한 눈 화장으로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 이물감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눈물계통의 장애 중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안구건조증'으로 알려진 '눈물샘의 기타 장애'다. 전체 진료인원의 87.3%를 차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눈물계통의 장애는 눈물샘, 눈물길 등에 염증, 협착 등의 이상이 생겨 눈물의 분비 및 배출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눈이 시리고 뻑뻑하거나 이물감 등이 있으며, 눈물 흘림이 심한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 기능의 저하나 안검염(마이봄선염)이 원인으로, 안질환의 진행 시 각막손상을 일으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건조한 환경 및 책·TV·컴퓨터·스마트폰 등을 장시간 계속해서 보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킨다.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어린이는 선천적인 눈물길의 막힘으로 인해 지속적인 눈물 또는 눈곱이 있거나 한쪽 눈물 흘림으로 인한 주변 피부의 짓무름 증상이 있는지 등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 탈모방지제 머리 정말 안빠지나?

식약처, 재평가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에 대한 유효성 재평가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삼푸, 헤어도넛 등 국내 허가된 탈모방지 의약품 전체가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평가하게 된다. 각 업체는 효력시험 평가를 위해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인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년 3

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는 2017년 5월 31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제품의 효능·효과 등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한다. 평가는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4년 국내 허가된 의약품 살충제에 6개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해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개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해 재평가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릴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병석 기자

## '아리랑' 상품 가치 최고, 이름값이 증명

아리랑 창간호 600만원 낙찰

1955년 삼중당이 발행한 월간 '아리랑' 창간호가 코베이 12월 경매에서 250만원으로 출발, 600만원에 낙찰됐다. 광복 후 발간된 잡지 창간호로는 사상 최고가다. 함께 출품된 1953년 발행 월간 '청춘' 창간호 35만원, 1954년 발행 흥사단 기관지 '새벽' 창간호가 25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가격이다. 이 같은 높은 호가에 대해 경매사 측은 "창간호인 데다가 대중 잡지임에도 표지가 A급인 경우가 흔치 않고, 특히 최근의 아리랑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록에 의하면 창간호와 2호는 3만부, 제3호는 5만부, 제4호는 8만부를 판매했다. 당대에 큰 인기를 누린 잡지인 셈이다. 근대 문학 서를 주로 거래하는 오키에서적 측은 "아리랑 잡지는 1960년대 중반 월남 장병 위문품으로 최고 인기품이었다. 연애, 오락, 스포츠는 물론 상식과 교양을 담은 최고의 종합잡지"라고 평했다.

앞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했다는 회고와 함께 경주 알영정 전설과 밀양 아리랑 전설 등 근원설화를 다뤘다. 이어 해방 후 불린 아리랑 사실을 10여편 소개했다. 너잘났니 내잘났니 자랑을마라/ 조선은행 지폐장이 더잘났다. 집잘매고 배잘짜는 동네처자는/ 양갈보 바람에 다나가네. 그리고 2호 예고에서 나온규와 가까웠던 전장근(1941년 영화 '복지관리' 감독)이 나온규 원작 '아리랑'을 소설화해 연재한다고 알렸다. 결국 이 잡지는 아리랑을 제호로 활용해 아리랑이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 때문 만은 아니겠으나 아리랑은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창간호는 한겨레아리랑연합회와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윤희 기자



## 2016년 새해, 국악기 하나쯤 배워보세요

대구시립국악단 동계 국악강습회

대구시립국악단은 새해가 시작되는 2016년 1월11-22일 까지 2주간 동계국악강습회를 연다. 국악강습회는 이번으로 제55회째다. 방학기간을 이용, 전통 국악기를 손쉽게 배워볼 수 있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실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과목당 1만 원의 강습료로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소규모 클래스 운영으로 강의 만족도는 높인다. 과목은 해금, 가야금, 한국무용, 장구, 단소 5과목으로, 가야금과 장구는 강습기간 동안 악기가 제공되며, 해금은 2만 원에 악기대여

가 가능하다. 강습시간은 해금, 한국무용, 단소가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진행되며, 가야금과 장구가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진행되므로 2과목까지 중복신청이 할 수 있다. 시립국악단 상임단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과목당 2명씩 배정돼 기초부터 상세히 지도해 주므로 국악에 관심이 있는 초중학생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습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 수여식을 한다. 과목당 정원은 15명이고,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전화접수 받으며, 문의 및 접수는 대구시립예술단 단체운영팀(053-606-6193/6196)으로 하면 된다. 최윤희 기자



골프 소식

정혜진, 파인테크닉스 입단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정혜진(28)이 LED조명 제조업체 파인테크닉스 골프단에 입단했다.

정혜진은 2012년 롯데캐논타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파인테크닉스 골프단은 정혜진과 함께 기존 윤승아(29), 정희원(24)으로 팀을 구성, 2016 시즌을 시작한다.

골프존유통배 아마골프대회, 필리핀에서 개최

제1회 골프존유통배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내년 1월 21일부터 나흘간 필리핀 바콜로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은 순수 아마추어 골퍼로, 골프여행 상품 가격인 89만9천원을 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은 총 100명이며 신페리오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볼빅, 내년에 '미니 투어' 개최



국산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은 2016년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가 함께 참가하는 '볼빅 오픈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횡성의 청우 골프장에서 남녀 16회씩 총 32회가 열린다.

총상금은 3억2000만원으로, 대회당 1000만원(우승상금 3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타이거 우즈

"통증 없는 2016년 희망"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상으로 점철된 2015년을 뒤로 하고 건강하고 통증 없는 2016년을 기원했다.

우즈는 23일(한국시간) 자신의 웹사이트에 "2016년에 가장 바라는 것은 (대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통증 없이 건강하게 상태로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우즈는 지난 가을에만 두 차례나 허리 수술을 받았고 언제 복귀할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에 만 40세가 되는 우즈는 내년 목표 중 하나로 유럽과 맞붙는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에 선수 겸 부단장으로 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즈는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뒤 자신의 모습에 대해 "여전히 골프를 치며 메이저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축구 김영권·조소현, 2015 KFA 올해의 남녀 선수

김영권, 7년만의 우승을 이끈 주인공  
조소현, 월드컵 사상 첫승 16강 진출

2015년 대한민국 최고의 남녀 축구 선수로 김영권(25·광저우 에버그란테)과 조소현(27·인천 현대제철)이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KFA 시상식'에서 올해의 남녀 선수로 김영권과 조소현을 각각 선정했다.

김영권은 올해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지난 8월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한 동아시아컵에서 빗장수비로 후반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팀의 무실점 행진과 7년만의 우승을 이끈 주인공이다.

또 스페인 FC바르셀로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1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도 소속팀인 광저우 에버그란테를 4강으로 이끄는 등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보냈다.

김영권은 "작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해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이 돌아온 것 같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내후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여자 선수로는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캐나다월드컵에서 활약한 조소현이 선정됐다.

'싸움닭' 조소현은 올해 한국여자축구가 월드컵 사상 첫승과 16강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는데 기여한 주역이다.

조소현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여자월드컵 스페인전에서 후반전 동점골을 터뜨리며 16강 진출의 발판을 놓았다. 또 동아시아컵

에서도 호쾌한 장거리 동점골로 숙명의 라이벌 일본 격파의 선봉에 서는 등 맹활약했다.

조소현은 "대표팀이 잘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해 내년에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성적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올해의 선수상은 협회 기술위원 투표 50%와 체육기자연맹 소속 언론사 축구팀장단 투표 50%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올해의 베스트골수는 지난 1월 호주아시아컵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손흥민(토트넘)이 받았다.

신설된 영플레이어상은 이상민(현대고)과 홍해지(고려대)가 각각 수상했다. 이상민은 지난 10월 2015 FIFA 17세 이하(U-17) 칠레월드컵에서 주장을 맡아 한국의 16강행을 이끌었다. 홍해지는 중앙 수비수로 두각을 보이며 올해 처음으로 성인대표팀에 합류했다.

올해의 지도자상에는 용인대학교의 이장관 감독과 대전 한빛고등학교 김진형 감독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리스펙트상은 올림픽대표팀 소속의 심상민(서울)과 인천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에 돌아갔다. 심상민은 지난 2월 태국에서 열린 킹스컵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선수의 폭력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호평을 받았다.

히든 히어로상은 14년간 여자대표팀의 의무 트레이너로 묵묵히 일한 송승씨가 받았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발표한 랭킹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종합 1위에 선정되는 기분 좋은 뉴스도 있었다"며 "슈틸리케 감독이 '큰 만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주 기분 좋은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2015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김영권과 조소현이 트로피에 키스를 하고 있다.

## KLPGA 조윤지 8연속 버디 2015 최고 명장면으로 뽑아

팬들이 뽑은 KLPGA 최고 명장면에 올라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의 8연속 버디 신기록이 올해 팬들이 뽑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최고 명장면에 올랐다.

KLPGA 투어를 중계한 SBS골프는 23일 "골프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5 KLPGA 최고의 명장면' 투표에서 조윤지의 8연속 버디가 33%의 높은 지지를 받아 선정됐다"고 전했다.

조윤지는 지난 5월 열린 E1 채리티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번 홀부터 8번 홀까지 8홀 연속으로 버디를 치며 신기록을 세웠다.

전인지(21·하이트진로)와 고진영(20·넵스)의 홀인원이 조윤지의 뒤를 이어 2위와 3위에 올랐다.

전인지는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전 3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24.5%의 지지를 얻었다. 고진영의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챔피언십 홀인원은 9.9%의 표를 얻었다.

이밖에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에서 승부를 가른 박성현(22·넵스)의 18번 홀 버디 퍼트(9.5%)와 안신애(25·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를 5년 만에 투어 정상에 올린 이수규를 KLPGA 챔피언십 4차 연장전 세 번째 샷(8.4%) 등이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투표는 SBS골프 카카오픈서 친구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KLPGA 2015 동계 봉사활동 진행 최혜정·박유나 등 참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15 동계 봉사활동에 나섰다.

KLPGA는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 '바다의별'에서 동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KLPGA 사무국 직원 포함 총 12명이 참가했다. KLPGA 이영귀 부회장을 비롯해 정규투어에서 활동하는 최혜정(24)과 박유나(28), 정예나(27), 양승아(26)가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약 2시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산책, 식사 준비,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 등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2015 KLPGA 시즌 마지막 정규대회인 조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거둔 최혜정은 "즐거웠다. 봉사활동은 사실 처음 와 보는데, 시간이 된다면 또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차이나 중국여자오픈에서 홀인원의 행운을 누렸던 박유나도 "처음 와 본 KLPGA 자원봉사자라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정말 순수한 장애인분들 덕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4강 탈락해도 공만 잘치면 대학간다...

여자축구 전담부서 신설... 아마추어 디비전 4단계 확대

앞으로 고교생 축구 선수가 경기 결과가 아닌 경기 출전 기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아마추어 디비전 시스템이 4단계까지 확대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 해트트릭 2033'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소년과 청소년 축구 문화를 바꾸기 위해 상급 학교 진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회는 유소년과 청소년 선수가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선수의 경기 성적이나 경기에 참여한 기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떤 대회에서 몇 강 이내에 들었는지 그 결과가 진학을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몇 경기에서 얼마만큼 출전했는지 과정이 진학의 요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수 협회 미래기획단장은 "선수의 경기 참여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확대하는 등 신임생 전형 요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협회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표팀에서 부족한 부분을 유소년 때부터 키워갈 수 있도록 연령별 핵심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협회는 또 현재 12세 이하로만 돼 있는 유소년 클럽 리그를 9세 및 10세 이하와 7세 및 8세 이하로 확대 운영해 학년별 실전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유소년 시절 축구 선수로 뛰다가 중간에 낙오된 선수들을 위해서는 축구 선수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축구협회에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12세 이하 감독들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고함 등을 칠 수 없게 된다.

또 대학 동아리 리그를 운영해 수도권 대학 여자 축구동아리 리그가 부활되고, 대학 2부 리그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생활체육과 통합이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재 K1, K2의 디비전 시스템을 K3(세미프로 리그), K4(생활체육 직장인 리그), K5(생활체육 조기회 리그)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K3리그에 참가하는 내셔널리그를 비롯한 20팀은 시즌 성적을 토대로 2017년부터 두 그룹(가칭 KFL1, KFL2)으로 운영되며, 2018년부터는 자체 승강제가 이뤄진다.

이와 2020년까지 K3 이하 아마추어 리그를 등 총 4단계(KFL1, KFL2, K4, K5)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내년부터 아마추어 축구 디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해 2033년까지 K리그를 포함한 성인축구 디비전 시스템을 완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스스





# 경찰 생활 30년 내 집에서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잔 날은 몇 밤 되지 않았다

김석기, 어떤 우문현답 엘리트 경찰서 1등 CEO로



“경찰 생활 30년 동안 내 집에서 두 발 뻗고 편히 잠을 잔 날은 몇 밤 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경찰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봉천동에 있는 우리 집에 단 한 차례도 가 본적이 없었다. 자동차로 30분의 거리였지만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거나 잠을 자고 나올 형편이 못했다. 부임하면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시위 진압에 온 힘을 쏟았고, 그 다음에는 부시 대통령 방한 경호 등으로 늘 자정을 넘겨서 서울경찰청 가까이 있는 관사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나올 정도로 긴박한 하루하루를 보냈다.”(“눈물의 퇴임식” 중)

“잠을 줄여가며 바쁜 업무를 해내는 것도 벅찬데, 1800명이나 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마음을 쓰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다. 그 비결은 직원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성심성을 다하는 것이 경영성과 못지않게 중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면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한국공항공사의 공기업 경영평가 성적은 2013년 C등급에서 2014년 A등급으로 뛰어올랐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다.”(김석기는 노조와 맞지 않는다고? 중)

김석기(61)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에세이집 ‘엘리트 경찰에서 1등 CEO로’를 냈다. 내년 4월13일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놓고 사퇴했다.

책에는 김석기 전 사장의 성공스토리가 담겼다. 서울경찰청장, 미국 보스턴대 방문 연구원,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30여년을 경찰과 외교관으로 일한 후 2013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첫 출근길, 노조는 천막까지 치고 출근을 막았다. 언론과 야당 역시 심드렁하긴 마찬가지. 열흘 동안 집무실에 못 들어갔다. 반대이유는 나

하산 인사. 여기도 공항과 항공에 대한 비전문가, 경찰청장 내정자 겸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폭력시위를 진압하다 생긴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론 등 모진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김포공항 국제선 의전실에 야전침대를 놓고 업무를 시작했다. 2년여가 흘렀다. 취임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2014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5%가 증가해 2015년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6개 공공기관의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013년도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두 단계를 뛰었다. 정부에 대한 배당금으로 556억원을 납부, 국가 재정에도 기여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지방공항들이 부임 후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한국의 최고 경영인상도 수상했다.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공항공사 노조도 취임 1주년, 2주년 때 김석기 전 사장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성공의 비결로 소통의 힘을 꼽았다. 그는 취임 직후 사내 게시판에 ‘CEO 우체통’을 개설했다. 회사 발전을 위한 의견이든 인사 불만이든 뭐든 말하는 공간이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기 위한 행보였다. 1대 1 소통 채널이 사장과 직원 간의 간격을 좁혔다. 철저히 편지의 비밀이 보장되고 인사나 조직 개편 등에 반영되자 직원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노조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과도한 복지해택, 고용세습 등의 방만 경영의 잔재들도 건어낼 수 있었다.

‘우문현답’ 그가 즐겨 쓰는 건배사 중의 하나다. 술잔을 들고 그가 ‘우문’하면 직원들은 ‘현답’이라고 화답한다. 건배사 ‘우문현답’의 속뜻은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과 향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직원은 1800여명. 김 사장은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거나 ‘호프데이’ 미팅을 제안,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여러 이야기를 하심탄회하게 들었다. ‘고객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물어 봤다.

한국공항공사에는 전국 14개 공항과 항공기술훈련원이라는 교육원도 있고 향로시설본부도 있다. 또 깊은 산중에 위치한 ‘무선 표지소’라는 곳도 있다.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 현장의 소리를 전부 다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2015년 14개 공항과 모든 현장을 연결하는 화상시스템을 만들었다. 직원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 무엇보다 화상회의를 지켜본 직원 스스로가 경영자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2015년 새해에는 16개 지사(14개 공항, 향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를 릴레이로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3500여 명이나 된다. 공항이 잘 되려면 공사 직원들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중요하다. 공항 협력업체들은 보안 검색, 소방, 환경미화 등 공항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이들도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공항가족’으로 생각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입는 근무복을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제작했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가족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공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수첩을 똑같이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해외 연수 기회도 배로 늘리는 등 공사 직원과 버금가는 혜택을 줬다.

그는 “공항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고객과 직접 마주치는 1차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불편이나 불만은 고객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 환경을 편하게 바꿔주는 일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이 제시한 비전은 ‘월드클래스 공항기업’이다. 기존 공항이 그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수준이라면, 그가 꿈꾸는 공항은 비즈니스와 라이프를 창조하는 곳이다.

자유현 기자

# 봉화군 사랑나눔 천사들 기부문화 실천하다

(주)롯데 이재환 대표, 다문화가정에 지원금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소외계층에 성금

봉화군이 고향인 (주)롯데 이재환 대표가 관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지난 23일 봉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파커 50점과 모국 방문지원금 36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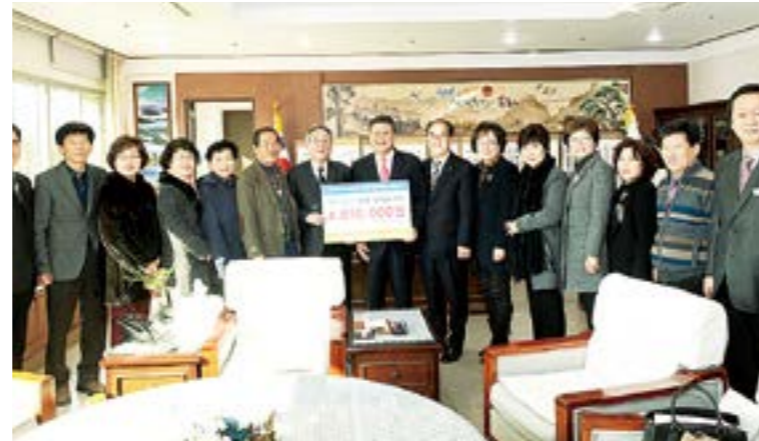
이 대표는 이번 전달식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방한용 파커를 지원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족 항공료 및 체제비 등을 지원했다.

그동안 (주)롯데에서는 2010년부터 화북보일러, 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2014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샌들 및 방한용 파커도 지원, 소리 없이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롯데 이재환 대표는 “나눔은 삶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내 것을 조금 덜고 다른 이와 발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강조하며 고향인 봉화에서 소외되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해 훈훈한 사랑 나눔을 실천을 강조했다.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철준)는 지난 22일 봉화군청을 방문, 성금 461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봄부터 지역주민과 관내 각 기관, 단체에서 준비한 불품 5000여점을 기증받아 봉화송이축제 기간(10월2-5일)동안 행복나눔장터를 운영하면서 판매한 수익금이다.



특히 봉화송이축제 행복나눔장터에 봉화군노인복지관(관장 신세환)에서 자체적으로 바자회부스를 운영해 판매한 수익금 190만원을 센터로 기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데 일조했다.

한편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군민의 자발적인 불품 기부를 통해 2011년부터 행복정미소(아나바다장터)를 운영해 소외계층에 무료로 지원함은 물론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박철준 이사장은 “이번 행복나눔장터 수익금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관내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끊임없이 기탁

부영산업개발(주)150만원  
대한불교 관음사 100만원  
영운회 50만원, 풍기농업협동조합 1000만원 기부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부영산업개발(회장 황진구) 150만원, 대한불교(재)선학원 관음사(주지스님 원명) 100만원, 영운회(회장 서오석) 50만원, 풍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서동석) 1000만원을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 연말 기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날 기탁자들은 “평소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이 있어 장학회를 찾게 됐으며, 우리지역 발전의 길은 후배들의 우수 인재양성”이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장육현 이사장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성을 보내주신 덕분에 장학회가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영산업개발(주)은 장수면 성곡리 80-1에서 석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대한불교(재)선학원 관음사는 장학금과 팔죽 300인분을 함께 기탁해 평소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등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영운회(회장 서오석)는 영주시청운전직공무원들의 모임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장학금 기탁 등 나



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풍기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실천해 경영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각 1000만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해 현재까지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더불어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성기 기자

# 상주시 사별면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주)한길푸드, 마을경로당에 ‘사랑의 쌀국수’전달 사별면 참배수출단지, ‘사랑의 쌀’ 40포대 전달

상주시 사별면에서는 지난 21일 낙동면의 (주)한길푸드(대표 김상진)에서 사별면 경로당 32개소를 찾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겨울철 간식격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직접 생산한 쌀국수(100박스)를 전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주)한길푸드는 우리 쌀로 다양한 국수를 생산하는 쌀국수 전문 생산 업체로 사별면 매월리가 고향인 김상진 대표는 관내 경로당뿐만 아니라 연말 소외된 이웃에게도 쌀국수를 전달하는 등 각별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별면 참배수출단지(대표 이만희)에서는 지난 21일 겨울철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는 관내 32개소 경로당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제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kg 쌀 40포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사별면 읍담리의 참배수출단지는 고품질 수출배를 생산하는 대표기업으로 매년 겨울철 관내 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의 소외계층을 찾아 위문품, 후원금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나눔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김세호 사별면장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쌀국수를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부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으며 나눔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 故 김중기 전 예천군의원, 인재육성 장학금 1억원 기탁

故 김중기(전 예천군의원, 전 예천LPG충전소 대표)씨가 지난 11월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 하면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예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사용할 것을 유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겨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지역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든 유족들은(妻 권희영, 子 김중혁) 23일 오전 9시 30분 예천군청을 방문해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을 전달한 김중혁(현 예천LPG충전소 대표)씨는, 아버지는 평소 지역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인재 육성에 예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부친을 회상했다.

최명환 예천군민장학회이사는 고인의 고



귀한 뜻에 따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쓰도록 하며 예천군민장학회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라는 책필질이라 생각하고 그 뜻을 잘 받들어 나가겠다고 이번 기탁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이 예천군민장학금 기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원식 기자

## 사랑의 온도탑이 펄펄 끓어 오르게

한파가 온 세상을 얼릴 기세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온도탑 눈금은 올라가야 한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불경기 여파로 연말 온정마저 얼어붙었다는 안타까운 보도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2016년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북도민들의 이웃사랑 정도를 나타내는 경북 사랑의 온도탑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22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2016나눔캠페인' 모금액은 39억3300여만원으로, 전국 사랑의 온도 46도(1621억원·22일 기준)보다 훨씬 낮은 31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인 기부보다는 기업 기부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경북은 기업들의 불우이웃돕기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전반적으로 낮아 개인기부자들의 풀뿌리 기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랑의 온도계'의 수은주를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가 참여하는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복지시설에서 근근이 생활하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

업 지원에 투자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공동체를 만든다.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시기다. '나눔문화', '기부문화' 확산은 도민의 참여에 달렸다. 거액의 기부가 아니라 소액이라도 자기 것의 일부분을 나누려는 따뜻한 온정이 절실하다.

복지분야 재정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빈부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위에는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가 수도무하다.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긴요하다.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정부와 민간, 소득계층 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양극화 및 계층 간 위화감 해소로 공동체 의식의 확산을 가져와야 한다. 모두의 소박한 나눔, 온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북 기업들의 통 큰 구출정신이 절실하다. 여러 사람이 한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일은 국가도 할 수 없으나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연말연시를 맞아 무슨 계획을 세우든 이웃돕기부터 먼저 행하면 어떨까. 남을 돕는 손길에 행운이 담기는 법이다. 사랑의 온도탑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보자.

## 우리나라도 지진대비는 철저히 해야

22일 새벽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도 지진이 감지됐다. 진앙은 전북 익산 북쪽 9km 지점이었다. 규모 3.9의 지진이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내륙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는 4년 만이다. 이날 지진으로 익산 부근에서는 '깡'하는 소리와 함께 큰 진동이 느껴졌으며, 200km 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기상청은 애초 지진규모를 3.5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규모를 3.9로 수정했다.

올들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5번째다. 그 중 이번이 유일하게 내륙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도 가장 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내륙에서 규모 3.9의 지진은 지난 2012년 5월 11일 전북 무주에서 발생한 이래 처음이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14회, 2012년 9회, 2013년 18회, 2014년 7회 등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초 제주 서귀포시 남동쪽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은 해역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통상 지진은 규모 3 정도에서부터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이하의 지진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번 익산 지진처럼 4에 가까운 지진이 그것도 내륙

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위험스럽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6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규모를 6.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왕조실록 등을 토대로 조선시대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여러차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규모 5-6 정도의 지진이 도심의 지하에서 발생한다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면 고층건물의 경우 붕괴 위험성이 커진다.

지난 2011년 뉴질랜드 남섬의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해 185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과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에서 6000명의 사망자와 150여만명의 이재민을 낸 지진은 규모가 6.3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화산활동이 왕성한 지진대 위에 있는 일본 열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안정된 지각판에 있어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는 갖춰야 한다.

대형 지진이 자주 발생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지진대책을 갖췄다는 일본도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속절없이 당했다.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한 신문** **광역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      |              |       |              |     |              |     |              |
|------|--------------|-------|--------------|-----|--------------|-----|--------------|
| 대 표  | 053-267-9000 | 경영지원국 | 053-267-5000 | 광고국 | 053-267-0800 | 문예부 | 053-253-0065 |
| 부사장  | 053-254-0500 | 기획조정실 | 053-267-0600 | 사회부 | 053-253-0060 | 지법부 | 053-253-0064 |
| 편집국장 | 053-257-0200 | 임원실   | 053-267-0700 | 정경부 | 053-253-0061 | 편집부 | 053-253-0063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익을... 생각한다

### ■ 최종찬의 세상읽기

### 위기의식 없는 것이 위기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INS) 원장

수년전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비유하여 "천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다고 하였다.

우리 경제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 매출액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14년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도 11월 기준 11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2013년 대비 200조원 늘어나 올해 말에는 사상 최대인 12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300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은 1년 적자가 각각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포항제철 등 철강업과 석유화학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기업의 실력을 요약하는 주가지수는 2007년 2000선을 돌파한 이래 8년째 2000선 이하에

서 맴돌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 청년 신규채용은 급격히 줄어들어 고용대란이 예측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1% 수준으로 정착되는 등 점차 일본형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이다. 이미 25-49세 인구는 2008년부터 줄고 있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는 줄어들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상회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복지비 부담을 증가시켜 재정건전성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대중공업 등 중견기업 노조는 수조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이미 행한 노조들은 높은 청년 실업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법과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관련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각종 규제개혁도 각종 이익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각 지역도 기업유치 시에는 요란하게 선전하다가 일단 투자가 시작되면 각종 민원을 요구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국내투자의 3배나 되는 금액이 해외투자로 빠져나갔다. 일자리가 그만큼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 조사를 한다고 미국의 9·11 사건 조사와 비교하는 돈을 사용하며 수년간 끌고 있다.

정치권은 선진화법 등으로 동물국회는 면했거나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로 변하였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여 경제관련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을까. 반면에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규제완화와 기술투자 등으로 발 빠르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환위기는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세계경제 여건은 요즈음보다 훨씬 좋았다. 당시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국가적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각계각층이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받아들였다. 극렬히 반대하던 노동개혁, 기업 구조조정을 감내했다.

우 국민이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경제도 어렵고 인구노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환위기 때보다 대내외 여건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높였으나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이 안되면 언제라도 강등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져 벼랑 끝에 설 때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 윤신근의 애완동물이야기

### 2, 3일 만에 죽는다...공포의 전염병<116>



**윤신근**  
수의사

전염성 간염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주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식욕부진과 함께 높은 열, 허약, 혈액 섞인 구토, 혈액 섞인 설사, 민감한 눈, 각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각각의 백탁, 신생 개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죽기도 한다. 또한 감염된 개의 오줌이나 변을 통해서 감염된다.

수액 요법, 비타민 투여, 수혈, 광범위 항생제 등의 치료방법이 있으나 무엇보다 세심한 간호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강아지의 경우는 사망률이 높으며 예방을 위하여 예방 주사를 정기적으로 접종하면 된다.

파보바이러스성 장염은 1978년 소련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으로, 위장관 및 심장에 치

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40-41도의 높은 열과 심한 구토, 토마토 케첩과 같은 설사, 식욕 부진, 탈수, 허약,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어린 강아지의 경우 2, 3일 만에 갑자기 죽기도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주로 과식이나 급작스런 사료 변경 시,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지방분이 너무 많은 음식을 공급했을 때, 기생충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사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한다.

병든 개와의 접촉, 그리고 분변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한다. 설사가 심할 땐 지독한 냄새는 물론, 기생충이 변에 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 기생충약을 먹이는 것은 허약한 개를 더욱 허약하게 만들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항생제, 수액 등의 집중적인 투여가 필요하며 특히 탈수 방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하트만 액 등을 정맥 주사해 주며 베이파문, 울트라콘과 같은 면역 촉진제나 네오마이신, 보갈 등의 주사제가 유효하다.

■공포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켄넬코프는 정말 골치 아프다. 켄넬코프에 감염되면 눈 주위에서 진물이 나고 심한 기침을 하는데, 흥역 등과 합병증이 오면 생명이 위험하다. DHPPL과 함께 1년에 1, 2회씩 접종해 줘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는 파보 바이러스 성 장염과 유사하다. 혈변, 구토, 식욕 부진, 탈수 등으로 갑자기 죽는다. DHPPL 접종과 함께 3주 간격으로 3-5회 정도 접종하며 매년 1, 2회 접종해 줘야 한다.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심한 손상을 주는 질병으로 지독한 변 냄새와 구토, 오렌지색 또는 황록색의 심한 설사, 탈수 등의 증세를 보이며 7-10일 경과한 뒤 그냥 회복되기도 하지만 폐사율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병든 개의 변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므로 반드시 격리 수용해야만 한다.

치료 방법은 역시 파보바이러스와 비슷하며 제때에 예방 접종을 하여 건강을 유지해 주고 집안을 깨끗이 소독해 줘야 한다.

**신재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환경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신재보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보험료제도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

**02 재해예방활동**

| 위험성평가인정  | 사업주교육인정   |
|--|---|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하고 자체적으로 신재보험료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03 적용대상**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 일일계속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연도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일일계속사업장: 산재관리번호는 하나이고 사업개시연도가 다수인 사업장)

**04 적용방법**

| 구분    | 위험성평가인정   | 사업주교육인정       |
|-------|---|---------------|
| 인하율   | 신재보험료율 20% 인하   | 신재보험료율 10% 인하 |
| 유�효기간 | 3년간   | 1년간           |
| 방안    | 재해예방활동 인정일이 속한 다음연도부터 인정기간 만큼 일일계산하여 신재보험료를 인하 (중복시 인하율이 높을 것 적용) |               |

**05 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신청서』(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첨부)를 사업장에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  
\* 상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kosha.or.kr) 또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06 업무처리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 (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 (사업주) →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 (근로복지공단)
  
```

\*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재보험료를 인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SOLINCO®

*Cosmos Information Wave Energy*



**당신은 비거리에 놀라고  
정확성에 또 놀랄 것입니다**

TEL (053) 782 - 3882 / (053) 782 - 8791~3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000-1번지